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6월 19일)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조계종 종무기관 조직개편 출재가 대중들 머리 맞댔다

조계종, 7월 17일 '조직 개편 공청회' 첫 개최

우봉 스님 조직 개편안 발제해
허운 · 만당 스님 등 토론 나서
'종무조직 슬림화' 질의 잇달아
"5개년 계획 등 서서히 감축을"
포교 기능 등 축소 우려 제기돼
종무행정 일원화엔 긍정적 의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앞두고 의미 있는 변화 방안을 이끌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기획실과 중앙종회 미래대비특별위원회는 7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앙종회의원 연수를 겸해 마련된 공청회에는 중앙종회의원과 종무기관 부실국장 스님, 신도단체 임원진 등이 동참해 조직개편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공청회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의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 발제에 이어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만당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곽채기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230회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급변하는 사회 상황 속에서 종단의 존립과 생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진우 스님은 "미래불교는 현 조직 구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와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앙종무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전법과 승가교육에 종단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종단 행정기구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활발했던 논의는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만당 스님이 미래를 대비한 인적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노동법 등을 감안해 인원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신규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종무원 교육과 재비치 등으로 채워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봉 스님의 이 같은 설명에도 인적 구조조정 없는 슬림화에 대한 의문이 잇달아 터져나오자 김상규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서서히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됐을 때 포교 조직과 기능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상규 부회장이 "포교부의 경우 연구기능은 사라지고 문화콘텐츠 기능만 추가돼 포교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우봉 스님은 개편되는 총무원 조직 전체가 포교에 앞장서기 위해 조정됐음을 명확히 했다.

우봉 스님은 "포교를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주관기기 위해 삼원을 통합했다"면서 "조직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포교이며, 앞으로 총무원 모든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전법과 포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조계종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 인적 물적 관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 서비스와 사찰 지원 기능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방안을 높게 평가하고 "중앙종무 기능의 서비스화와 지원 기능 확충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을 △중앙종무기관 효율성 제고 △중앙종무기관의 서비스 확충 △종무행정기능의 전문화 및 과학화 △미래지향적 조직 구축 등 4가지로 정리한 곽 교수는 특히 "조직개편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스님에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위임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면서 "재직자 재교육관 훈련 확대로 조직개편이 지향하는 본래 목적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인 홍보를 언급하며 홍보와 공보 역할 구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리, 사찰재정 위기를 예상, 수익사업 기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계종은 공청회 이후 조직개편 실무 TFT와 법무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조직개편 초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8월 말 입법예고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 종회, 주요 기관장 등의 동의를 얻은 뒤 관련 법안을 9월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시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앙종무기관은 8부 3실 19국으로 조성된다. △종무행정부(행정국, 감사국) △기획재정부(기획국, 재정국) △포교부(전법국, 신행국) △교육부(수행교육국, 승려복지국) △사찰부(사찰지원국, 자산국) △문화부(문화정책국, 문화유산국) △사회부(사회협력국, 문화유산국) △호법부(호법국)로 구성됐다.



K-연등, 폴란드를 비추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2024 유네스코 한국 문화유산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연등회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이 폴란드 현지 문화기관과 협력해,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통등 만들기 강습, 연등행렬, 전통한지등 전시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폴란드 현지 전통등 강습생들이 손수 만든 등을 들고 촬영한 단체 사진.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합니다"

현대불교신문 · 로터스월드 MOU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에 협력키로

열악한 식수환경으로 각종 수인성 전염병과 영양실조에 노출된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는 캠페인이 시작된다.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혜도 스님)과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7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로터스월드 사무실에서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얀마의 경우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지표면으로 흘러 식수와 생활용수에 혼합돼 사용되고 있다. 그마저도 지하수량이 많지 않아, 우기에 빗물을 저장해 침전물을 가라앉히고 식수로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로터스월드는 안전한 식수 제공을 통한 미얀마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발원하고, 2020년부터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 미얀마 사원학교를 중심으로 정수시설 45개가 설치된 상태다. 정수시설 1기가 설치되면 아이들과 마을 주민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특히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원학교 학교장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와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지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정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박재완 본지 총괄국장(사진 왼쪽)과 박금호 로터스월드 총괄국장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에게 정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양 기관은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은다.

업무협약에 따라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관리한다. 지원 대상 학교 선정, 마을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정수시설 건축 진행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 지원도 관장한다.

현대불교신문은 기사, 광고 등을 통해 '정수시절 지원 캠페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한다. 협약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2026년 7월 15일까지 2년이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총괄국장은 "오염된 물로 전 세계에서 한 해 평균 500만 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 그만큼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얀마 사원학교 아이들과 주민들이 식수에 대한 근심 없이 생활하고, 나아가 미래를 꿈꾸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현대불교신문 총괄국장은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는 미얀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수시설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탱크, 각종 필터, 수도시설 등 정수시설 1기를 조성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로터스월드는 후원자에게 정수시설 조성 과정과 효과,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한다. 후원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로터스월드(02-725-4277)로 연락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후원 계좌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나서겠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이승만, 불교를 분열로 몰아”
특별대책위 구성해 대응 추진
조계종 등 범종단적 연대 시사

문화사업단 운영 등 원만추진
태고보우 국사 선양도 ‘본격화’
12월 中불교계와 국제학술대회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취임 1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7월 12일 열린 기자회견에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도들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

취임 1주년을 맞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서울 종로 송현광장에 추진되고 있는 이승만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종단 및 범불교계 차원의 반대운동을 펼칠 뜻을 천명했다.

상진 스님은 7월 12일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상진 스님이 발표한 회견문 대부분은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입장과 계획을 밝히는데 할애될 정도로 태고종단의 깊은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송현광장에 이승만기념관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자 불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힌 상진 스님은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7차에 걸친 유시 발표를 통해 불교계의 분쟁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려 오랜 내홍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개신교 교세 확장을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불교를 억압함으로써 친일불교 청산과 근대불교의 새로운 태동을 위한 한국불교의 자정 노력을 무산시켰다”면서 “그로 인해 우리 불교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송현광장의 의미도 다시 조명했다. 상진 스님은 “송현광장은 금강산 유점사 경성포교당 불이성 법륜사와 태고종 총무원사가 자리잡고 있고, 이웃 불교종단 조계종의 총무원도 함께 이웃하고 있어 불교계의 상징적 의미가 큰 장소”라고 밝혔다.

이어 “광장 일대는 4.19혁명 당시 무력에 희생당한 여중생들의 모교인 덕성여중이 위치했던 곳이며 수많은 민주열사가 희생당한 통한과 아픔이 서린 공간”이라며 “이런 장소에 이승만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상진 스님은 교육원장 재홍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불교적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펼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태고종은 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계종 물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과 긴밀히 협조해 전불교도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문 발표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상진 스님은 ‘송현광장 아닌 다른 곳에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되는 것은 반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전면 반대’라는 강경 노선으로 입장이 변화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기념관 추진위원회와 논의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 측이 ‘협의하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황망하고 어이가 없었다”면서 “그동안 송현공원 아닌 서울 어느 곳에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도 이승만기념관이 건립돼서는 안 된다는 게 종단의 공식 입장이다. 저를 비롯한 태고종 종도들은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이웃종단과의 연대도 적극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은 정기적으로 공양 자리를 갖는데, 그 자리에서 기타 안건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내놨다. 모두 반대운동에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며 “이미 조계종에서는 종교편향특위가 대응 중에 있다. 함께 연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1년간의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공약 사항이었던 ‘문화사업단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상진 스님은 “현재 문화사업단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태고종은 중앙집권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간 묻혀있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면서 “용궁사, 선암사, 태고사 등의 문화시설불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종단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태고종조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상진 스님은 “영남대에서 교수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정년퇴직해 태고사에서 공부하는 학자가 계시다. 이 분이 현재 태고 보우 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안에 태고 보우 국사 전문연구서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2월에는 임제 선사의 19세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그 가르침을 계승한 태고 보우 국사의 관계를 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를 중국 불교계와 함께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 바른 선택 중요…‘선명상’ 체험을”

우원식 국회의장, 진우 스님 예방
정쟁 해결 위해 ‘바른 사유’ 강조



“첨예한 갈등이 잇따르는 정치에서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선택을 하려면 바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선명상’으로 가능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우원식 제22대 국회의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사진〉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러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진우 스님을 찾았음을 밝히며, 현재 첨예한 정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정치는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바르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선택이 어려운데 이는 자신이 조금 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멘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선명상을 통해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선명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이 진영, 이념, 젠더 등의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회를 통해 세계에 한국의 선명상을 보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가령 수습기자

종단협, 2024년 하반기 사업 확정

8월 26~30일, 중국 오대산 순례
10월 29~31일, 일본 구원사 대회
10월 14~19일에는 세계불교포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7월 18일 서울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순례 진행의 건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진행의 건 △제6차 세계불교포럼 참석의 건이 올랐다.

종단협은 8월 26~30일 중국 문수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종단협은 2012년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논의하고 회원 종단 간 화합을 목적으로 순례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 10회를 맞았다. 순례와 함께 중국불교협회를 방문, 우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10월 29~31일에는 일련종 총본산 미노베야마 구원사에서 ‘제24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 구원사 대회’를 개최한다. ‘공영사회 구축에 있어서 불교 정신의 가능성’을 주제로 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요와 학술강연회로 진행된다. ‘제6차 세계불교포럼’은 10월 14~19일 중국 절강성 닝보시 설두사에서 열린다. 세계불교포럼은 세계를 사랑하고, 생명을 돌보고, 불교를 장려하고, 자비심을 가진 지식인들을 위한 평등하고 다양하며 열린 차원의 대화와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원력으로 함께하고 화합으로 공생하자’를 대주제로 9개 소주제로 발제가 이어진다. 임은호 기자

직할신도회·법우사 ‘천년을 세우다’ 동참

7월 12일 진우 스님 예방서…진우 스님 “마음 내줘 감사”


직할교구신도회(사진 왼쪽)와 전주 법우사(사진 오른쪽)가 ‘천년을 세우다’ 불사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와 전주 법우사가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다.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와 전주 법우사(주지 삼명 스님)은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각각 불사금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힘들 때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반드시 (부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법우사 주지 삼명 스님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으며, 곧 임기를 마무리하는 최 회장은 “비록 소임은 끝났지만,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 김민재 수습기자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 일 시 : 2024년 8월 10일 토요일(음7.7) 오후 3시 ~ 5시
■ 장 소 :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 三師 七證師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존증아사리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존증아사리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존증아사리 원순 율사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존증아사리 만초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존증아사리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존증아사리 담화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무진선원 주지)
■ 수계동참금 : 3만원
■ 복 장 :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 문 의 : 사무국 051)501-7554
■ 주최 ·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조계종, 9월 불교도 대법회 역량 모은다

직할교구 회의서 적극 참여 당부
"아이디어 반영할 것" 결집 요청
포교원, 교구본사 국장 회의에서
수계법회 신청·책임자 선정 주문

임은호·김내영 기자

'2024년 불교도 대법회'가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에서 봉행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전방위 역량 결집에 나섰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주요사찰들에게 K-명상의 세계화 염원을 담아 적극 참여를 요청했고 포교원도 세세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도 직할교구 주요사찰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사찰 주지스님들에게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동참과 결집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도대법회는 직할교구 주지스님들의 절대적인 호응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에 어울릴 수 있는 대법회를 통해 국민들이 불교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회는 전통적인 불교 의식을 통한 우리불교의 참모습을 선보이는 자리이자 스님들에 대한 예경을 불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특히 국제선명상 대회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진우 스님은 "K-명상 세계화 선포를 통해 새로운 포교방식의 물코를 틀 것"이라면서 "K-명상 전법은 불자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 반영할 테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직할교구 사무처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주지스님들에게 △봉행위원회 조직구성 동참 △사찰별 수계 신청자 모집(8월 12일까지) 및 실무책임자 선정 △승보공양 명단 제출 △안전계획 사전 수립 등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 2568(2024)년 제1차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를 열어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교구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포교원은 각 교구본사에 500명 기준 수계 신청자 접수, 승보공양 스님 명단 제출, 실무 진행과 관련한 안내·공유·점검을 위한 책임자 선정 등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청했다. 특히 3만명 규모의 행사로 계획된 만큼 교구본사별로 사전에 단체 이동과 안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포교원과 포교국장 스님들이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함께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했다.

'2024 불교도 대법회'는 9월 23~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와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는 이번 법회는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와 600여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보공양법회,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불자 대상 전통문화 재현 행사로 봉행되는 수계법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전계사로 진행되며 사부대중 3만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승보공양법회는 600명 스님이 육법공양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하에 로시 조안 핼리팩스, 퉙텐 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 등 해외 유명 명상가와 국내 명상 전문 스님들이 함께 하는 선명상 실참으로 구성됐다.

마음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민 염원을 결집하는 국민 음악회에는 트로트 가수 김태연, 락커 김경호, 아이돌 그룹 등이 출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법회 기간 내내 광화문광장 옆 의정부지 역사유적공원에서는 전통등 전시 및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전통한지로 제작된 장엄등 20여점이 전시되며 명상 마당, 전통 마당, 청년마당, 템플스테이마당 등 4개 주제로 20여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문화사업단, 2차 전통사찰순례 회향식

7월 15일, 회향증서 전달해
총 54명 관음성지 33곳 순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한국 대표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한 이들에게 회향증서를 수여했다.

문화사업단은 7월 15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4년도 한국전통사찰순례 2차 회향식'을 진행했다. 2차 순례에는 총 54명이 회향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5쌍의 부부를 포함, 총 28명의 순례자가 참석해 회향증서를 받았다.〈사진〉

회향증서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한 '한국전통사찰순례' 책자에 기재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해당 사찰의 인장을 모두 찍으면 받을 수 있다.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대우 스님은 "전국 33곳의 관음성지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삶을 돌아보고 밝은 정신을 일깨웠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사업단은 인장첩의 다양화 등 끊임없는 개선·보완을 통해 순례자들의 원만한 순례를 돕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순례 회향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순례의 의미와 소감 등을 나누며 행복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현수·김미현 부부는 이번 순례가 부부가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 임현수 씨는 "조계사를 시작으로 해인사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부부가 함께 사계절을 자연에서 물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시간이었다"며 "요즘 주변에 (한국전통사찰순례를) 홍보하고 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1번 해볼 만한 의미 있는 순례"라고 말했다. 아내 김미현 씨도 "33곳을 다니며 각 사찰의 주련을 유심히 봤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번뇌를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사찰순례는 2008년 시작돼 지금까지 404명이 회향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 홍보대사에 관서현보살·배드보스 위촉

7월 17일, 위촉장 수여
"청년 포교 활성화 기여"



대불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사진 왼쪽부터) 오심 스님, 관서현보살, 장정화 회장, 배드보스, 각운 스님.

가수 관서현보살과 팝아트 미술작가 배드보스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 대불청)의 새로운 홍보대사 위촉돼 청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장정화 대불청 회장은 7월 17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관서현보살(서현진)과 배드보스(조재윤)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보대사 임기는 1년이다.

위촉식에는 대불청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심 스님(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과 각운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이 참석해 불법 홍포를 위한 홍보대사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오심 스님은 "같은 청년의 시선에서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포교에도 일조해주길 기대한다"며 "특히 뉴진 스님, 관서현보살을 비롯해 젊은 불교를 이끌 다양한 불교문화 콘텐츠 생산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각운 스님도 "대불청의 홍보대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장정화 회장은 "(홍보대사들과)침체된 한국불교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늘 노력하는 대불청이 될 것"이라며 "결과가 안 보인다고 주저하지 않고, 한국불교의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해나가겠다. 대불청 지회·지구 활성화로 발전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불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드보스는 팝아트 미술작가로,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청년불자 포교를 목적으로 보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불자 아티스트, 불자 밴드, 불자 트로트 가수, 불자 아이돌 기획을 준비 중이다.

관서현보살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현진은 현대적 음악과 불교를 융합시킨 노래로 불법을 전파하고 있다. '귀의합니다' '단 하나의 진리를' 등 찬불 EDM을 불러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배드보스는 "연예·문화 기획자로 20년간 활동해왔다. 그 시간을 돌아보니 불교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뿌듯함을 느꼈다"며 "무겁고 엄숙한 불교가 아닌 '힙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생산해, 불교의 대중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서현보살은 "관서현보살을 활동명으로 여러 무대에서 공연하다 보니 '관세음보살'을 공부하고 불교를 알아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불교박람회,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곳에서 찬불가 공연하며 재미있는 불교의 모습을 알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지구를 위해! 채식하는 복날 어떠세요?

불교환경연대, '복날 채식 캠페인'
채식 보양식 레시피·소감 공유
기후위기알리기, 채식 피켓팅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탄소 발생의 주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초복(7월 15일)부터 말복(8월 14일)까지 한 달간 '복날 채식 캠페인'을 진행한다.

'맛있게 즐겁게 지구를 위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육류 보양식 대신 채식 보양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불교환경연대는 △여름철 채소 요리 레시피 영상 △윤리적·환경적 채식의 장점을 담은 카드뉴스 △채식 권장 숏폼 영상 등의 콘텐츠를 SNS를 통해 배포한다. 캠페인 기간 불교환경연대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채식 경험과 소감, 응원 메시지를 남겨준 참여자에게는 '채식 권하는 북극곰' 키링도 증정한다.〈사진〉

생활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녹색사찰에는 캠페인 카드뉴스, 환경법회를 위한 환경보호 법문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채식 권장 콘텐츠 배포와 더불어 복날 채식 캠페인 피켓팅도 진행한다. 불교기후행동 집중행동의날인 7월 26일, 불교기후행동 상임대표 일문 스님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채식을 권유한다.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복날 채식 캠페인에 대해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복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가령 수습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310만원
▶1차 9월 26일 출발~10월 5일 도착 (10일 일정)
▶2차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3차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4차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5차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6차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부탄,네팔 성지순례 8일
출발일정 : 9월 21일~28일(6박8일)
10월 13일~20일(6박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특히 카트만두에서 부탄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5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 최상의 코스입니다.
일 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동참금 | 399만원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중국 3대석굴중에 하나인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도량인 오대산 성지순례입니다.
동참금 | 159만원 8월 21일 출발~25일 도착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신화를 창조하게 된 모티브를 부여해준 신비로운 산으로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지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성스러움에의 열망과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3차 8월 24일~9월 8일(16일간)
동참금 | 55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티베트 성지순례를 기록한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수미산)책을 드립니다.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오송 참사 1주기 추모재…"다시는 비극 없길"

조계종 사노위, 7월 15일
헌향·헌화로 극락왕생 발원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지몽 스님 "안전 사회 구축"

오송=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사노위 스님들이 추모 기도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와 관련된 어떠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송 참사는 재난이 아닙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던 어머니와 동료들, 결혼한 지 2달 된 가장, 휴일에 출근하던 30대 청년, 친구들과 여행으로 버스를 이용한 20대 딸까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14명의 시민이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들어찬 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기원하는 추모의 장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7월 15일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현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것은 물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추모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위원 혜도·덕인·시경·주연·동신·해륜 스님과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추모재에 앞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추모 발언에 나섰다. 최은경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갑작스런 참사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최고의 방법은 진상규명"이라며 "피해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전날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동승자 형의 묘비 앞에서 양꼬치와 소주 한 잔을 주며 혼자 살아나와 미안하다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고, 책임자들 처벌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왔다"며 "국가가 시민의 목숨을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오송 참사를 잊지 말고 관심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에 이어 사노위원 스님들의 집전으로 추모 기도가 시작됐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외는 동안 참석자들은 영단에 헌향·헌화하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다. 영단 앞에선 유족들은 비통함에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참사 일년을 맞은 오늘 슬픔과 아픔에 여전히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안전한 사회가 돼 더 이상 안타까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신뇨엔, 한국불교 발전기금 전달 잇따라

7월 16 · 17일, 동국대 · '천년을 세우다'에

일본불교 종단 신뇨엔(상임이사 정경 국원)이 7월 16일 서울 동국대 4층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신뇨엔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동국대 인재불사를 위해 1억원 발전기금 전달을 약정하고 매년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신뇨엔은 장학금 전달을 통한 인재불사와 지역 봉사활동으로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곳으로 안다"며 "큰 기부금 쾌척에 감사하고 종립대학으로서 불교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은 "신뇨엔도 동국대처럼 청년불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기부금이 청년불자 양성뿐만 아니라 불법 포교에



도 앞장 서는 동국대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동국대 총장, 성정석 대외협력처장과 마츠나가 아츠시 신뇨엔 국제원장, 상임이사 정경 국원, 사회교류부장 상환 국원이 함께했다.

한편, 신뇨엔은 7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가령 수습기자

더프라미스, 대전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

정방마을 이재민 35가구에
연고 등 건강 · 위생 용품 전달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7월 12~1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 이재민 35가구에게 건강·위생 구호물품을 지원했다.〈사진〉

7월 10일, 대전에는 시간당 60.5㎜ 폭우가 내렸다. 새벽 4시경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은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망가진 제방은 긴급공사가 진행돼 임시방벽이 설치됐고, 주택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재민 35가구는 대피소가 마련된 기성종합복지관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미국 모금 플랫폼 Give2Asia(현 every.org)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약 2800달러(한화 약 400만원)로 이재민 35세대(65명)들에게 건강·위생 용품을 전달했다. 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대피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고, 파스, 모기기피제, 활력액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더프라미스는)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물품을 구매해 당일 이재민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초등학교 건립 후원 협약

익명 후원자 1억 5000만원 약속
교실 · 도서관 · 기자재 지원 사용



신축교사 · 도서관 건립부지 조감도.

지구촌공생회가 익명 후원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에 초등학교와 도서관 건립에 나선다.

지구촌공생회와 익명 후원자는 7월 12일 전북 군산 은적사에서 '캄보디아 초등학교·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익명 후원자는 총 1억5000만원의 후원을 약속했다. 후원금은 캄보디아 캄퐁스푸주 바세데스군에 위치한 쁘레이 클롱초등학교의 신축 교실, 도서관 건립과 기존 교실 보수, 기자재 지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후원학교는 캄퐁스푸 주교육청에 추천 의뢰,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성우 스님과 후원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쁘레이 클롱초등학교에는 현재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199명이 재학 중이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시설이 크게 낙후돼 있어 신축 교실이 절실하다.

클롱초등학교에 건립될 신축교사는 56㎡(7m×8m) 규격의 교실 5개다. 교무실과 3~6학년 교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도서관은 현재 가건물 형태의 유치원을 철거한 후, 해당 부지에 지어질 계획이다. 기존 5개 교사는 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할 방침이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익명 후원자는 "어렸을 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학교를 중퇴해야 했다"며 "전 세계 아이들이 나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일이 없길 바라며 후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8월 1일부터 건립 공사에 착수,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김내영 기자

나누며하나되기, 취약계층에 자비나눔

7월 17일, 충주시청서 전달식



천태종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 스님·천태종 사회부장)는 7월 17일 충주시청에서 충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3000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용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나누며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조길형 충주시장, 신호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물품은 △어린이 영양제 2종 △효소 건강 기능식품 △KF마스크 △다목적 장갑 △손 소독제 △물티슈 등이다.

같은 날 오전에도 나누며하나되기는 충북 옥천군청을 방문해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3000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시설, 쪽방촌 지원 시설 등 50개 시설에 방문 또는 택배로 3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김내영 기자

파라미타 사경 공모전 시상식…대상에 김민재

7월 12일…76점 수상작 선정
"공모전 신청, 공덕 짓는 일"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원명 스님, 이하 파라미타)가 주최한 '제27회 전국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김민재 보문고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파라미타는 7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경 공모 우수작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파라미타에 따르면 올해 사경 공모전에는 전국 2만여 어린이·청소년이 참가했다. 1차 자체 심사에서는 628점이 본선에 올랐다. 5월 29일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문종 스님, 전 한국사경연구회장 행오 스님, 박경빈 한국사경연구회장의 2차 심사를 거쳐 총 76점의 작품이 우수 공모작으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제27회 사경 공모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는 김민재 보문고 학생 등 수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우리 학생들이 사경 공모전에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사경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까지 좋은 일이 생긴다. 공동체가 행복해지리라는 일념으로 정진해달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련, '제2차 조직 리더 워크숍·법등장 연수'

7월 13~14일, 서울 석불사서
영캠프 주요프로그램 실습 등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7월 13~14일 서울 석불사에서 '제2차 조직 리더 워크숍 및 법등장 연수'를 개최했다.〈사진〉 워크숍에는 소그룹 리더로 역할을 맡은 영캠프 예비 법등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 불자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경험하며 영캠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은 워크숍 개최를 지원한 포교원과 석불사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오는 영캠프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법등장들이 올해 영캠프에서는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하면 구성원이 즐거운 영캠프를 꾸려갈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교불련, 교수로 전법 영역 확대한다

6개 지부 모여 '전법위' 구성
교수불자회 창립 · 재창립 지원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대전대 교수, 이하 교불련)가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생은 물론 교수 전법까지 포함하는 '캠퍼스 전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캠퍼스 전법운동'은 대학생 전법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대학별 교수불자회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교불련은 기존 서울·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등 전국 6곳에 두고 있는 권역별 교불련 지부조직의 역할을 확대해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법위원회는 교수 불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최근 들어 전 국민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회에 캠퍼스 내 불교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불련 지부장 소임을 맡은 한 분 한 분이 '권역별 전법단장'을 맡아,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동 지원은 물론 교수불자회 창립·재창립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스카우트와 '캠핑'하면서 불교 배우자"

7월 12~13일, 영동 반야사서
기차여행 · 트레킹 · 텐트 경험



청년불자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불교를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 스님)은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충북 영동 반야사에서 '2030 청춘캠프-우리끼리 Train, Trekking, Tent'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불교동아리, 청년회 법우, 불교스카우트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차여행, 트레킹, 텐트 생활 등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모여 계획과 꿈을 공유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이다연 학생(23, 한양대)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다. 좋은 친구들도 만나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며 "이런 행사가 또 열리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서인 학생(20, 성균관대)은 "부모님의 권유로 참가해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와보니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길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최현기 불자(31, 달마사청년회)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현상은 내 그림자…‘그림자 명상’으로 나를 觀하라”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4강

내 마음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

7월 16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4강은 ‘내 마음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 시작 전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혜주 스님의 안내로 진우 스님이 강조한 ‘5초 우선멈춤’ ‘5분 무시로 명상’을 실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강의에서 진우 스님은 모든 고락(苦樂)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함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며 선명상의 필요성을 설했다. 또한 선명상 방법으로 ‘쉘 패스(Shall Pass) 명상’과 ‘그림자 명상’을 소개했다. 이날 강의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7월 16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제4강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

정리=신중일 기자 · 김민재 수습기자

부처님은 현상을 ‘공’이라 하셨다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중요
자기 감정덩어리 제거하면 ‘해탈’
끄달림 없는 상태 되는 게 ‘선명상’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했고, 이를 완벽히 해결하셨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종교·철학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완벽하게 괴로움을 타파하신 건 부처님이다. 이후에 부처님 법을 이은 중국의 달마 스님부터 육조 혜능 스님 등 조사들이 간화선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 위인들이야말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 이고득락(離苦得樂) 하셨다.

선명상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불자들 역시 지금까지 절을 수십 년 다니면서 신심을 돈독히 했지만, 아직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란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보고 듣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다뤘다. 이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나는, 소위 내 몸 육근(六根)으로 감지하는 대상들이다. 불교적으로 보면 하나의 현상이 현현(顯現)했다고 표현한다. 이 현상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항상 이 현상에 끄달려 살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 따라서 감정이 천차만별로 움직인다. 이런 고리를 끊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현상에 감정을 얹는다. 이에 따라 오류가 엄청나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철수가 간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하지만 ‘영희는 예쁘다’는 굉장히 주관적이다. 여기서 스스로 오류를 만든다. 보통 이를 ‘분별’이라 이른다. 분별이 업(業)이 되는데, 업을 살펴보면 결국 업은 ‘감정놀음’이다. 감정놀음은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반드시 생기듯이 행복한 감정이 생기면 반드시 불행한 감정이 생긴다. 누차 강조하듯이 모든 결과는 오롯이 ‘나의 업’이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우리는 안·이·비·설·신·의, ‘육근’으로 대상을 인식한다. 그 대상은 소위 ‘육경(六境)’이라고 한다. 눈이 있고 보이는 대상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내 눈이 있고 대상만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듣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 식(識), 주관적인 인식이 붙으면서 비교가 생겨난다.

하늘에 28천(天)이 있든 말든 문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더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르마, 업, 분별 감정이 돌고 도는 걸 인과라 한다. 이를 소위 윤회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고 업멸, 업장 소멸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나 고락이 반복돼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단 하나다. 수온(受蘊)이라는 기분, 감정 덩어리다. 단순히 얘기하면 이 ‘기분’이 윤회한다. 나머지는 조건이 지워졌을 뿐이다. 조건 지어진 것조차 부처님께서는 ‘공(空)’이라고 이르셨다. 정(情), 기분만을 제외한 모든 것은 원자, 쿼크, 소립자로 연기하고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현상에 속을수록 업이 자꾸만 생긴다. 인연생기한 현상에 의지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진우 스님, 궁금해요

Q 사찰에서 ‘무시로 명상’을 가르쳐도 노보살들은 몸이 아프거나 잡념이 심해진다고 호소한다. 노보살님들을 위한 맞춤 가르침이 있나요?

A 선명상을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명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도 된다고 일러드렸다. 초심자는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이 모두 선명상이지만 좌선이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이다. 일단 몸을 가만히 정지시켜 방해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 항상 생각을 쉬어야 한다. 잡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잡념을 인지하고 관(觀)하라. 내 감정 상태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다. 수식관이나 염불, 독경이 집중하는데 좋다. 다른 방해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명상의 기본이다. 그러니 노보살들은 염불이나 다라니를 하는 것이 좋겠다.

Q 의지와 상관없이 수차례 항암을 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좋았다. 하지만, 치료가 끝나고 더 우울해졌다. 이 무게를 덜어낼 방법이나 지향점이 있는가요?

A 우선멈춤 · 무시로 명상 · 쉘 패스 명상 그리고 그림자 명상을 하면 된다. 인과는 항상 리드미컬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전쟁의 시대가 교차한다. 지구의 고락이 변화하는 것처럼 개인의 고락 역시 리드미컬하게 변한다. 1분, 1초, 1년, 1시간, 찰나 속에도 즐겁고 괴로운 감정이 윤회한다. 괴로움이 오면 나의 괴로운 업이 당도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시기만 참고 견디면 곧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깨친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티끌만큼의 불만이 생기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육근·육경·육식(六識)이 일체화되면 걸림이 없어 무애자재(無碍自在)라고 이른다. 좋다·나쁘다, 선·악, 옳고 그름, 바름과 삿됨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함부로 속단하거나 규정하면 안 된다. 그러다 스스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상 속에서 선택은 하되 그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현상을 너무 주관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부처님은 현상을 ‘공’이라 하셨고, 여러 경전을 통해도 이를 밝혔다. 〈금강경〉과 〈반야경〉에서 현상을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공이라고 본다. 〈법화경〉에서는 ‘실상(實相)’이라 한다.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은 내 감정 덩어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로 귀결이 된다. 나의 감정 덩어리, 고락, 분별, 업을 제거하면 시공이 사라진다. 언제든 상관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평안하고 평안한 니르바나를 가지게 된다. 이 현상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이를 ‘깨침’의 상태로 본다.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구별은 하되 거기에 감정을 얹어서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다. 결국은 불교적으로 보면 현상은 계속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에 의해 우리가 끄달리지만 결국 그마저도 없다. 이를 바로 알면 평안한 곳, 피안,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선명상이다.

그럼, 서양 철학자들은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철학은 소크라테스에서 비롯됐다. 소위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philosophy)’라고 하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필로스(philos)’는 ‘사랑하다’이며 ‘소피아(sophia)’는 지혜를 뜻한다. 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잘 가꾸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철학자는 모두 불자라고 얘기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의 알라’도 니르바나, 깨침의 세계를 밝힌 것이다. 플라톤의 이데아도 소위 존재와 감각 넘어 실재, 자성, 불성을 의미한다. 이는 지각되거나 시간의 변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락의 업이 쌓여있는 곳을 설명한 것은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잠재의식을 말했다. 불교적으로 보면 아뢰야식을 말한다. 내가 지금 좋고 싶다는 감정 덩어리가 모두 아뢰야식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윤회하고 반복된다. 나의 괴롭고 기분 나쁨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 잘되고 성공하고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면 행복하고 기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주관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긴다.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 지금 컴퓨터보다 몇 십, 몇 백만 배 성능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런데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일부 종교나 철학은 현상을 응용하는 것에만 관심을 뒀지, 괴로움을 없애는 데에는 100만 년 전이나 차이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5차, 6차 산업 혁명이 이뤄진다고 해도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고를 없애지 못하면 어떤 것이든 의미가 없다. 고라고 생각하는 감정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인류사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이는 부처님과 마음을 깨친 조사 스님들뿐이다.

강의 때마다 선명상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은 저번 주 강의를 포함해 2개의 선명상 방법을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쉘 패스(Shall Pass, 지나가리라)’ 명상이다.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 이 선명상을 하면 좋다. 어려움도 힘듦도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

그런데 몸이 사라지더라도 영가, 영혼(감정 덩어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업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소위 이것이 쌓여 아뢰야식, 무명식이 된다. 다음 생에도 그 감정 덩어리가 붙어 천상이나 삼악도에 떨어져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려면 선명상을 통해 내 감정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오늘 강의에서 소개할 선명상은 ‘그림자 선명상’이다. 아까 현상은 ‘일체유심조 만법유식(一切唯心造 萬法唯識)’이라고 했다. 즉, 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 것이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미운 업식이 있어 현상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어떤 경계를 만나도 좋고 싫음도 없고 평안하다. 모든 현상은 자신의 업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항상 현상은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해라.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그림자 선명상’을 실천해봐라.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됩니다’
‘특별한 할인가격, 더더 할인가격’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대 8일초	20개(한박스)	85,000원

파라핀	1.8리터 12병(한박스)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진우 스님 "선명상 생활 실천이 불교"

범어사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서 강조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선명상은 부처님 법을 이 시대에 가장 쉽게 알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 수행할 수 있는 불교 프로그램입니다. 잠시 5초간 멈춰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일상 속에 5분 정도 무시로(언제 어디서나) 진행하며,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면 명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명상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선명상에 담겨 있는 불교의 정신과 실천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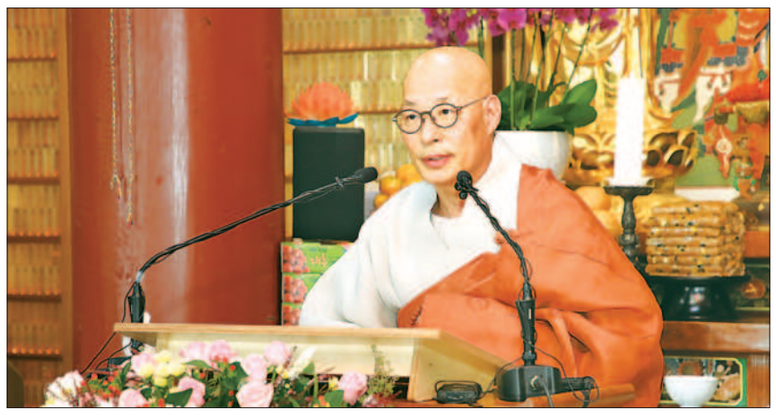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7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선명상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범어사는 현재 백중지장기도를 진행 중이며, 90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선지식 초청 법석을 열고 있다. 범어사가 진행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법회 법사로 범어사를 방문한 진우 스님은 자살 1위인 한국 사회의 정신문화 대안으로 선명상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 대국으로 경제 규모가 5위에 해당한다.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개개인의 경제력도 뛰어난 나라가 되었지만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다"며 "병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으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희망이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0여 사부대중 널리 동참해
선명상 포교 한국 불교의 해답
현대인에 맞게 전법·포교해야

이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 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일체 중생이 살기 위해 부처님 법을 현대인에 맞게 풀어 전법포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명상'"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13일 금정총림 범어사 설법전에서 선명상을 주제로 법문을 설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하며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첫 번째로 '우선 멈춤'이다. 5초만 멈추면 크고 작은 사고를 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상대에게 화가 올라오는 순간이 0.2초이다.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5초이다"며 "또한 5분 무시로 명상이다.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가능한 시간에 5분만 명상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힘든 순간이 와도 이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상을 기억하고 부처님이 말씀 하신 나눔의 삶, 육바라밀을 실천할 때 불국정토를 앞당길 불자가 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한편, 범어사 백중지장기도는 이날 7재를 이어 8재는 7월 20일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법문하며, 9재 7월 27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10재 8월 3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11재 8월 10일 BTN 광우 스님의 소나무 광우 스님, 막재 8월 17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법문하며 마지막 회향일 8월 21일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스님이 법문한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 박진용 5대 회장 취임

7월 13일 회장 이 · 취임식

부산남해불교신도회(회장 박진용)가 7월 13일 부산 해남 뷔페에서 불기 2568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진제 법원 대종사를 비롯해 법산 대종사, 박문옥 전 회장, 박진용 신임 회장 등 회원이 동참했으며, 1부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취임식은 취임사 및 취임회장 꽃다발 증정, 법어, 격려사, 축사, 공로패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는 7월 13일 부산 해남 뷔페에서 불기 2568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법어를 통해 진제 법원 대종사는 "산승의 이 고준한 법문 한마디를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이 소멸되고, 그로 좇아 지혜의 싹이 무럭무럭 자랄 것 같으면 나고 날 적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시게 되리니, 여러분 잘 받아 가져가 달라"며 "그동안 박문옥 회장께서 부산남해불교신도회를 잘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금일 박진용 거사가 제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신임 회장의 신심과 원력을 좇아 모든 회원들이 일심으로 화합하여 삼보(三寶)의 외호와 수행정진에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용 신임 회장은 "우리의 사명은 불교에 귀의하고 포교활동을 펼치는 것"이라며 "또한 양적 포교와 더불어 마음을 닦고 해탈하려는 노력을 적극 병행해 더욱 수행정진하는 신도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임하시는 박문옥 회장은 부산남해불교신도회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로 그간 헌신적인 노고에 본회를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 함께 해주신 전 집행부에도 무한한 감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박문옥 전 회장은 "여러분들의 자비심과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무사히 신도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며 "신임회장이신 박진용 회장은 불심이 깊고 기획력과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무애심으로 모임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부산남해불교신도회는 창립 전 한옥두 초대회장이 삼사순례를 주최하며 신행활동을 이어왔으며 2009년 7월 12일 창립됐다. 창립 이후 KBS 부산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 취임 축하 대법회를 개최하고, 전국 삼사순례 및 참선 수행 등 수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2주년 음악회

7월 27일 범어사서 개최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후원 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7월 27일 오후 3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부산불교환경연대 창립 제2주년 기념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창립을 기념하는 2주년 기념식으로 시작해 녹색사찰 협약식을 진행한다. 이어 음악회는 여여한 중창단, 한여울 오케스트라, 팬올린 D의 연주 등 전문음악가의 무대 펼쳐진다.

음악회 주제는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이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창립 2주년을 기념하고 후원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이어 활동가를 모집하고 함께 지구 환경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부산불교환경연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 부산불교환경연대가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생명을 위한 활동이 더욱 펼쳐지고 환경을 살리는 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 녹색 활동에 관심을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10-2134-880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원각사, 반려동물 위한 무료 천도재

8월 25일, 대원각사 경내서

반려동물의 영혼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시간이 열린다.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8월 25일 오전 11시 부산 장산 대원각사 경내에서 '반려동물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참여 대상은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죽음을 기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가능하다. 아울러 살아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접수 시 반려동물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반려동물 사진과 기념품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원각사는 "일체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고귀하다"며 "생명과 인연을 맺어 잘 보살피고 가족처럼 지낸 반려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바른 돌봄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051-701-882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포교사단, 갑진년 하안거 대중공양

7월 16일 100인분 공양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7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갑진년 하안거 대중공양'을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송재린 부산지역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직접 공양 음식을 만들어 수행 정진 중인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은 유부초밥, 떡볶이, 과일 등 다채로운 채식 메뉴 100인분을 장만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안거를 맞아 법화경 독송 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부산지역단 34개팀이 2회씩 독송 수행하고, 수행 기간 동안 십시일반 후원했다.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은 "매년 안거마다 포교사들이 함께 수행동참하고 승보공양과 나눔으로 회향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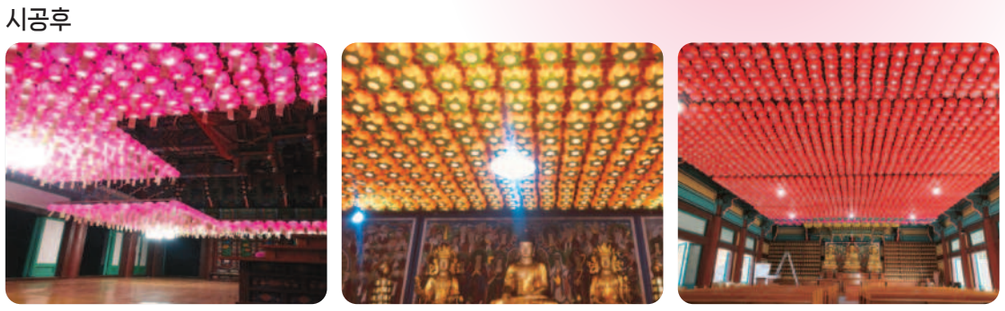
한편,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이번 하안거 기간 중 70일 동안 '법화경' 전권 10권을 릴레이 독송 정진 중이며 회향은 다가오는 7월 28일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정암사 산문 열린 날, '문화'로 장엄하다

8월 2~4일 '2024 개산문화제'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념 의미
자장율사 열반지 적조암 조명
8월3일 개산재…정념스님 법문
무용 공연, 산사음악회 등 다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의 수마노탑. 2020년 국보로 승격됐다. 정암사는 국보 승격을 기념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개산문화제를 8월 2~4일 개최한다.

태백산 적멸보궁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 스님)가 개산(開山)을 기념하는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한다.

정선 정암사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정암사 경내 일원 등에서 '2024 정선 정암사 개산문화제'를 연다"고 밝혔다.

정선 정암사는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 '국보 수마노탑'과 '천연기념물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가 소재한 한국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이다. 이번 정암사 개산문화제는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념해 시작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 정암사 개산문화제는 자장 율사의 열반지인 적조암에서 시작한다. 8월 2일 오후 1시 적조암에서 진행되는 '정암사 문화유산 발굴 프로젝트-적조암, 옛 선인을 만나다'는 〈삼국유사〉 '자장정률' 스토리를 한국 1인극의 대가 유진규와 시소리로 일가를 이룬 김평부가 무아·공의 의미로 해석한 퍼포먼스와 해금연주자 강은일의 즉흥 연주로 구성된다. 적조암에서 머물며 교단을 정비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을 조명하는 인문학교육연구소의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진다.

창건 1379주년을 기념하는 개산재는 8월 3일 오전 10시 정선 정암사 경내 특별무대에서 봉행된다. 개산재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전통 작법 이수자 스님들이 집전하는 진영 이운, 신중작법 등이 설행된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법문도 설할 예정이다.

8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함백산 위령재-하늘 길을 걷다'가 진행된다. 위령재는 전몰장병과 지역 석탄산업 희생자, 강원랜드 등 지역 발전의 이면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해원과 상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다.

지역을 기반한 다양한 문화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8월 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함백산 풍류, 말과 멋'은 정선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타계한 강기희 시인을 추모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날 문학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강기희 시인의 시와 산문을 낭독하고 이원규, 박남준, 신승근 등 초청시인의 자작 시 발표 등으로 꾸며진다.

8월 3일 오후 5시에는 불교 가르침의 핵심주제인 마음을 도상화한 '심우도'를 현대의 몸짓과 소리로 해석한 현대무용 퍼포먼스 '심우도_마음을 찾아서'가 정암사 적멸궁 앞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다수의 젊은 무용가들이 한층 성숙한 기량으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4일 오전 11시에는 정선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강릉시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하는 '함백산 다양성의 날' 행사가, 오후 1시에는 정암사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올해 산사음악회는 핑거스타일 클래식 기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하은과 리베, 한국 대표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가 이끄는 밴드의 공연으로 꾸며진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정암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위엄을 기리고 지역 상생을 발원하기 위해 개산문화제를 봉행한다"면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이주민들과 함께한 행사를 마련했다. 치유와 화합을 위한 정암사 개산문화제에 수희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문의 010-6361-2648

금산사, 월주 대종사 3주기 추모 다례재

7월 18일 처영문화기념관서
화평스님 주지 취임 고불식도



조계종 제17·28대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하고 동체대비(同體大悲)·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를 기리는 추모 법석이 마련됐다.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7월 18일 경내 처영문화기념관에서 태공당 월주 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월주 대종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사바세계는 분열, 갈등,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서 "월주 대종사여, 다시 한번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 제도 해달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태공당 월주 대종사는 한국불교사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처리하면서 오늘날 한국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대원력 보살행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태공당 문도 대표 도영 스님은 "은사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다"며 "세계명상평화센터 등 스님의 생전 유지를 이어받아 후학들이 스님의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의 취임 고불법회도 봉행됐다. 이날 화평 스님은 "금산사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불교와 지구촌에 보현행원의 가르침을 전하신 월주 대종사의 유지를 계승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며 "사부대중과 소통·화합하면서 금산사와 전북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산사 회주 도법 스님은 "막중한 금산사 주지 소임을 흔쾌히 맡아준 화평 스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자. 모두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금산사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쌍봉사,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 후원

점심식사 · 문화공연 · 경품 제공



진안 쌍봉사가 진안지역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7월 12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열린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에서 장기 자랑 경품과 사은품,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도 진안군 지체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시각장애인 점심 배식 봉사와 도우미 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날 행사에 참석한 120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장기 자랑, 초청 가수의 공연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보경 스님과 섬김봉사단은 행사를 마친 후 진안읍 대광1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 복날 식사를 위해 쌀 100kg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30돌 문사수법회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

문사수법회, 개원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7월 14일 담양 정토사서
30년 포교 여정 회고해


문사수법회는 7월 14일 전남 담양 정토사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문사수(聞思修)법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경전 공부로 불교 수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문사수법회(여여 대표법사)가 7월 14일 전남 담양 정토사(주지 혜광 스님)에서 30년 포교 여정을 회고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문사수법회는 한탑 스님을 회주로 추대하고 1988년 경전 법회로 시작한 신행공동체이다. 36년 법회운동과 30년 대중법회를 매주 일요일 개최하고 있으며 전국 7곳에 지역 법회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서출판, 방송미디어, 공연예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여여 대표법사와 정신, 명성, 범활, 범열 등 법사단을 포함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정평사 주지 정우 스님, 이순규 전 광주불교교육원장, 권탄준 금강대 명예교수, 이학송 동국대 불교동문회장도 함께해 축하를 전했다.

경주 정평사 주지 정우 스님은 "'불속이라도 뚫고 기어코 법문을 듣겠다'는 문사수법회 개원 30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법우들이 혼탁한 중생 세상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여여 법사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은 경전에 달렸다. 내 생명의 근원인 참생명 부처님을 30년간 모시고 살았다"며 "끊임없이 나의 생명 근원을 잊지 말고, 경전에 새겨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신앙하면서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마련한 행사도 진행됐다. 대중법회를 이끈 법사단 소개와 인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상영됐다. 이어 관음무(청심행), 노래(동조), 합창(밝은마음합창단) 공연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밀양불교대학, 신도기본교육 수료·수계식

밀양 여중생 사건 참회도
100일 동안 참회기도 진행



밀양불교대학이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밀양 불교계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참회해 눈길을 끌었다.

밀양불교대학(학장 정무 스님)은 7월 15일 밀양 용궁사에서 '제19기 조계종 신도기본교육 수료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료식에는 신도교육과정을 이수한 백종인 학생회장을 비롯한 수료자들에게 수료증과 '행도' 품계증이 수여됐다. 행도 품계는 12주의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는 조계종 신도 품계이다. 이어 봉행된 수계법회는 통도사 율주 덕문스님을 계사로 수료자들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했다.

밀양불교연합회회장 진각 스님은 "여러분들은 조계종의 수행 지침인 참선, 염불, 간경, 사경, 절 수행, 주력 6가지 수행을 열심히 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학장 정무 스님은 "기본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늘 신심과 원력을 세워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참회하는 발원문을 봉독했다. 육체적, 정신적 속박을 감당하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고통받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로 조속히 치유되길 발원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100일 간 시민법회를 열어 피해자 회복과 가해자 참회를 기원한다. 해당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밀양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갑사, 전통산사문화유산 인문학 강좌 개강

7월 13일, 경내 진해당서
총 4회에 걸쳐 무료 진행



조계종 제6교구 갑사(주지 탄공 스님)가 경내 진해당에서 전통산사문화유산 인문학 강좌를 개강했다.〈사진〉

강좌는 '2024년 전통산사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7월 1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갑사 문화유산과 인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유근자 국립 순천대 연구교수는 7월 13일 '지장·명부신앙 그리고 우란분재와 미술'을 주제로 첫 강의 나섰다. 강의에 참여한 20명의 수강생은 평소 지장전과 명부전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해소했다. 대전에서 온 한 익명의 수강생은 "지장전, 명부전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무척 궁금했다. 이번 강의로 많은 부분을 알게 돼 기쁘다"고 만족스러운 소감을 전했다.

향후 강좌는 △7월 20일, 박범준 YTN 라디오 PD(신문방송 전공)의 '의승과 문화콘텐츠' △7월 27일, 박병기 한국교원대교수 (윤리교육 전공)의 '한국사회와 공주 정신' △8월 3일, 이성수 동국대 국문과 겸임교수 (고전문학 전공)의 '고전문학에 나타난 영규대사' 순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갑사는 매년 새로운 주제로 불자들에게 배움의 터를 제공하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붓다봉사단, "건강한 여름 나세요"

영양탕 300인분 나눔



(사)붓다봉사단과 아중요양병원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영양탕을 대접했다.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7월 17일 전주 붓다 복지관 앞마당에서 지역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여름 대표 보양식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붓다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은 이틀간 장을 보고 직접 재료를 준비해, 300인분의 영양탕을 마련했다.〈사진〉

이날 아중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혈압, 당뇨검사 등 건강검진과 건강상담도 진행했다. 현진 스님, 가수 김민정, 색소폰 연주자 박보성 등이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도 함께 열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재현 붓다봉사단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양탕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수붓다회 출범…"대학생 전법에 최선"

회장에 김순남 신한대 교수



불자 교수 신행단체 '교수붓다회'가 출범식을 갖고,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한국불교 중흥에 의지를 다졌다.

김순남 신한대 교수 등 불자 교수들은 7월 18일 서울 봉은사 교육관에서 '교수붓다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교수붓다회는 김순남 신한대 교수가 회장을 맡았으며, 110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향후 교수붓다회는 학습위원회, 수행위원회, 성지순례위원회, 전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모임에서 불자 교수들은 미래 청년·대학생 전법 활성화와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해 발전적 지혜를 모은다.

김순남 교수붓다회장 "교수붓다회의 활동이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단의 동기부여가 되고 전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직접 여름 보양식을 대접했다.



일면 스님은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륜 스님에게 보양식 500인분을 전달했다.



마하무용단은 흥겨운 춤사위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생명나눔 후원기관 1호 현판식

“생명나눔 가치 나누는 노인복지관 되겠다”

초복특식지원행사가 열린 7월 17일, 행사에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기관 지정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후원기관으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생명나눔은 사회 흐름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나눔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봄, 후원의집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있는 생명 존중 문화를 널리 다채로운 방법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명나눔 후원의집 1호는 1952년 개업해 전주비빔밥의 맛을 이어온 한국집 롯데월드몰이다. 남양주 불암사도 생명나눔 후원사찰 1호로 선정된바 있다.

이날 생명나눔 후원기관 1호로 선정된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륜 스님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나눔의 가치를 전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기관 현판식 모습.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⑦

생명나눔 보양식 나눔 현장

7월 17일, 창립 30주년 기념사업
초복 맞아 송산복지관 어르신에
삼계탕 등 보양식 500인분 대접
“첫째도 둘째도 건강…소중한 삶”
마하무용단 춤사위에 함박웃음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특식지원행사를 개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응원했다.

의정부=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륜 스님)에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 발길이 이어졌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초복맞이 특식 지원에 나선 것.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남양주 불암사와 함께 7월 15일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초복특식지원행사 건강하계(鷄) 여름나기’를 개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마련된 나눔의 자리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법륜 스님, 불암사 주지 법일 스님, 김동근 의정부시장,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등이 동참, 어르신들에게 보양식을 대접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어르신들을 위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500인분을 준비했다. 또 떡과 과일, 음료 등도 준비, 무더운 날씨로 기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선물했다. 복지관 내 식당에 마련된 자리는 진즉 만석을 이뤘고 예비로 마련한 교육실도 속속 어르신들로 채워졌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또 모시겠습니다.”

일면 스님은 직접 보양식을 배식하며 일일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어르신들에게 미흡함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어르신들은 합장인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옥례(76) 할머니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친절한 말을 해주는 스님이 너무 고맙다”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이 난다”고 기쁜 마음을 표했다. 보양식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운 이경식(82) 할아버지도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로 올여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배식에 앞서 복지관 내 강당에서는 전달식과 공연행사가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개인의 소중한 생명과 삶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더 따뜻하고 건강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매해 여름과 겨울, 의정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여름이면 보양식, 겨울이면 김장김치와 동절기 생필품 등을 선물하는 생명나눔의 정성과 마음이 우리 지역을 살맛나게 한다”면서 “지역사회도 생명나눔 활동에 적극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은 흥겨운 춤사위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넉넉하게 준비된 따뜻한 음식과 흥겨운 공연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이 그치질 않았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7월 16일에는 회룡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실시했고 7월 말, 캄보디아에 20억 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30th Anniversary 1994-2024

2024년은 생명나눔실천본부 30주년의 해

30주년 기념식

2024. 10. 12.(토)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중강당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30년사 광고 모집

본부는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나눔 운동의 30년 역사를 담은 30년사를 발간합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순번	광고 사이즈	광고료
1	A4	2,000,000원
2	A4 절반	1,000,000원

접수기간 7월 31일 까지
광고료 접수 계좌 농협은행 301-0009-6876-31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광고 접수 문의 : 02-734-8051

충해·박락·변색…건조물 불교유산 보존 '시급'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조물 정기조사보고서' 살펴보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지정유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 유산들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를 통해 주의관찰, 정밀진단, 보수 판정을 받은 건조물 유산 중 대다수가 불교유산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신속한 보존처리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성과를 담은 '2023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국보, 서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경기),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보물, 충북),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전북), 경주 태종무열왕릉비(국보, 경북) 등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총 207건(국보 18건, 보물 189건)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정기조사 결과 △A등급(양호) 57%(117건) △B등급(경미보수) 3%(7건) △C등급(주의관찰) 32%(67건) △D등급(정밀진단) 2%(5건) △E등급(보수) 3%(7건) △기타(보수 중) 2%(4건)로 집계됐다.

이중 C·D·E 등급 진단을 받은 건조물 유산 중 대다수가 불교유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C등급 진단을 받은 67건의 유산 중 41건이, D등급은 5건 중 2건이, E등급 판정을 받은 7건 중 6건이 불교유산이었다.

보수가 필요한 E등급 진단을 받은 불교유산은 △대구 동화사 봉황문(보물) △합천 해인사 홍제암(보물)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보물)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보물) △영양 현리 삼층석탑(보물)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동화사 봉화문은 기단부의 기단석 및 계단석 일부가 이격됐으며, 벽체 4면이 전체적으로 충해와 습해흔 등에 인해 상당히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면 좌·우측 기둥의 기울과 기와열의 이완 등 구조적 손상도 다수 관찰됐다.

또한, 조사를 진행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실(이하 안전방재실)은 "봉황문의 기단부가 경사진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진동과 유수 유입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대비해 완충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은 벽체와 내부 벽화의 균열 및 탈락이 다수 확인되며, 기단부의 균 및 돌출도 조사됐다. 기둥과 평방 등에서 충해흔이 보였으며, 단청도 전반적으로 퇴색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안전방재실은 "정면 좌측 기단이 침하되고 활주 초석에서 수직 균열과 변형이 확인돼 부분적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물 대구 동화사 봉황문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보수' 진단 7건 중 6건 '불교유산'

'주의관찰'은 41건, '진단'은 2건

목조 건축물서 '충해' 공통 확인돼

국가유산청 "내년 예산 반영해 보수"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는 귀부 표면이 이전 조사(2018년)보다 흑색 변색 및 지의류 오염이 심화됐으며, 비좌의 균열이 이뤄져 비가 올 경우 물이 침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전방재실은 "고달사지는 정비됐으나 주변에 다수의 수목과 개천이 있고, 배수와 환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존처리와 함께 주변 환경 분석 및 탑비의 풍화도 등 상태를 분석해 보존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진단들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신속한 보존처리를 약속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단체에 공유해 현재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구 동화사 봉황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반영해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유산 정기조사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예방적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는 건조물 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총 841건이며, 올해는 21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7권으로 구성된 2023년도 보고서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도 공개됐으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수사 대웅전·고운사 가운루 보물됐다

국가유산청 7월 17일 지정 공고

조선 전 · 중기 佛殿 가치 인정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대웅전(사진 왼쪽)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사진 오른쪽).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불전(佛殿)이다.

고창 문수사는 64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 '문수사 창건기'(1758)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1607년(선조 40)에 중창됐고, 1653년(효종 4) 회적 성오 화상에 의해 또다시 고쳐지어졌다. 그 다음해 1654년 제자인 상유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했다.

국가유산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 형식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에서는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 전~중기에 이르는 양식과 전라도의 지역적 특색이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의성 고운사는 의상 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된 사찰로 전해지며,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사적비(1729)' '고운사사적비(1918)'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됐음이 확인된다.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3짱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 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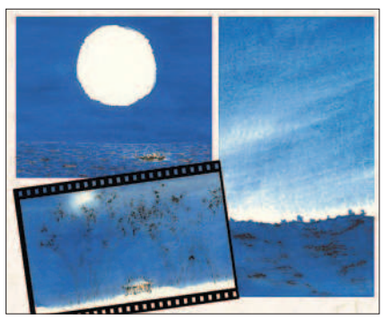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사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물로 지정한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자연이 들려주는 '불언지교'의 풍경

〈不言之教〉

김양수 화가 시화집 출간 기념전

7월 20일~8월 20일 여귀산미술관



한국화가 김양수가 시화집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를 출간하고 기념전을 연다.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도군 여귀산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양수 선 시화집 출판 기념전 '산 아래 집 짓고 새벽별을 기다린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 '그대가 부처' 등 22점의 그림과 시가 전시된다.

회화적 관점에서 김양수 화백의 작품을 바라보면 그림의 정적인 아름다움이 쉽게 다가온다. 김 화백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고요한 조화를 이루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원초의 시간성을 의미하는 바위의 단단함과 세상의 변화를 품은 물결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지엽 경기대 명예교수는 "한데 어우러져 있으나 나름의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는 듯 보이나 하나처럼 보이는, 대자연이 들려주는 불언지교(不言之教)의 참뜻을 담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화백은 2023년 여름에 그의 화실 '적염산방'을 화마로 인해 통째로 잃어야 했다. 목숨과도 같은 작품들도 남김없이 재가 됐다. 그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그런 시간을 거쳐왔다. 그렇게 그가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의 그림을 바라보면 그의 그림은 놀랍다. 그의 그림은 너무나 평온하고 아늑하고, 시는 세상을 따뜻하게 껴안고 있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중국 중앙미술대학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38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7~7/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열반경(2)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도표로 읽는 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무비 스님의 반야심경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4	매일 108배 신자비도량 참법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5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10	봉암사 동안거 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공안집 '연등회요' 역경불사 시작 알리다



연등회요1
회옹오명 편저
김태완 역주
담앤북스/ 4만 2000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연등회요1-선문답과 법문 공안집〉은 송나라 선사 회옹 오명(晦翁悟明)의 〈종문연등회요(宗門聯燈會要)〉(30권)를 국내 첫 완역하는 역경 불사의 첫걸음이다. 김태완 무심선원장은 〈만신찬속장경(卍新纂續藏經)〉 제79책인 〈종문연등회요(宗門聯燈會要)〉 총 30권을 번역·주석해 6권의 책으로 출간한다는 원력을 세우고 이번에 1권을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구어체인 백화문(白話文)으로 기록된 원전을 한중일 최초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흔히 〈연등회요〉로 불리는 〈종문연등회요〉는 남송 대혜 종고의 3세 문하이자 천주 숭복사의 주지였던 회오 오명 선사가 1183년에 편찬한 30권으로 된 선종 전등사서(傳燈史書)다. 과거칠불을 비롯해 인도 조사 28명, 중국 조사 6명, 우두종(牛頭宗) 9명, 오조 홍인(五祖弘忍) 문하 8명, 육조 혜능(六祖慧能) 문하 13명, 남악 회양(南嶽懷讓) 문하 18세 303명, 청원 행사(靑原行思) 문하 15세 289명 등 총 656명의 조사와 선사들이 깨달은 인연담, 선문답, 상당법어, 전법게 등이 실려 있다.

〈종문연등회요〉 국내 첫 완역
총 30권을 6책으로 출간 예정

'선종의 지침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고려 후기 진각국사 혜심이 편찬한 〈선문염송〉의 모체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어체인 백화문으로 쓰여 있기에 그간 일부가 번역, 인용되었을 뿐 우리말로 완역되지 못했다.

〈연등회요1〉은 김태완 원장이 한중일 최초로 〈종문연등회요〉의 백화문 원전을 번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덧붙였기에 그 성과와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태완 원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방대한 양의 원전과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원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현대 우리말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백화문 사전은 물론 한어(漢語)사전, 선어(禪語)사전, 불교사전, 중국어사전 등 가능한 모든 사전을 참고했으며, 불경(佛經)이나 선사들의 어록을 인용한 문장은 빠짐없이 그 원전을 확인해 번역의 오류를 줄였다.

또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배치해 한 단락씩 대역(對譯)해 번역의 정확도를 높였다. 문법적 사항과 불교 용어, 선 용어, 인명, 지명 등은 상세한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본문에 QR코드를 삽입해 무심선원에서 진행된 〈연등회요〉 법문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중국 조사선의 뿌리와 요체를 쉽고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역대 선지식들의 화두와 가르침을 참구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야심경, 현대 과학언어로 설명하다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정화 스님 지음
북드라망/ 1만6000원

〈반야심경〉은 일반인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경전 중 하나다.

〈반야심경〉은 유명한 만큼, 전문가용 입문자용 할 것 없이 해설이 담긴 많은 판본이 시중에 출간돼 있다. 현대적인 언어로 수월하게 해석하고 해설한 책들도 적지 않지만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다른 지평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반야심경〉에 압축된 대승불교의 요체를 현대 진화생물학과 뇌과학, 생명공학 등 현대 첨단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어서다.

생명계가 열린계, 곧 경계의 막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생명체건 고립된 개체로서의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화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32쪽

'열린계'는 자연과학의 개념으로, 외부와 물질 및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물리적 계(系)를 뜻하는데, 어떤 생명체건 고립된 개체로 있을 수 없다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정화 스님은 불교의 '연기'(緣起)를 말한다. 자연과학의 생명계를 불교의 '연기법계'와 연결하며, 고립된 막으로 닫힌 자아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무아(無我)에 연결해 간다.

정화 스님은 이처럼 현대 과학의 개념들로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는 물론 오온(五蘊), 육근(六根), 법신(法身) 등 핵심적인 불교 용어들을 풀어가며, 〈반야심경〉이 주문을 외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경전을 넘어 "중생계 그 자체를 부처 세계로 만드는 깨닫는 사건"에 나아가는 책으로 실감하게 하고 있다.

하여 "생명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깨달음을 실현하는 찬연한 삶, 반야바라밀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삶"이라 할 수 있으니, 삶의 모습마다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절인연을 온전히 살아가자고 말한다.

신중일 기자

'이것'의 진실을 드러내다



디스 이즈 잇
안 케르쇼트 지음
방기호 번역
도서출판 씨아이알/ 1만9000원

깨달음에 관한 공부는 스승과 제자,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해야 할 수행, 도달할 곳이 없다. 누구나 본래 도착해 있음을 문득 확인하게 될 뿐이다. 확인하고 나면 모두가 평등하게 '이것'이다. 아무도 본래부터 이 진실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진실을 놀라울 정도로 낱낱이 드러낸다.

이 책의 저자인 안 케르쇼트는 영성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오랜 세월 떠돌며 갈고 닦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안착하게 되는 종착역과 같다. 이 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 2부에서는 구도와 깨달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관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에세이식으로 서술한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부는 토니 파슨스를 포함하여 서구의 영적 스승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영적 체험과 깨달음에 대한 오해, 구도자들이 영적 여정에서 빈번히 겪게 되는 혼란,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모순되는 이러한 전일(全一)적인 관점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로 구성돼 있다.

신중일 기자

할머니 말씀엔 道가 있다



할머니의 도덕경
장의균 옮김
개마서원/ 1만 2000원

〈할머니의 도덕경〉은 20년 전 우연히 노자의 〈도덕경〉을 접한 저자가 이뤄낸 공부의 궤적이다. 노자의 도덕경을 '노자가 한문본으로 편집하기 이전에 원래 있었을 우리말 격언 모음으로 되살린 책'이기도 하다.

또한 옮긴이는 도덕경을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우리 인류의 아주 오래된 지혜서'라며 "얘야,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그렇지, 주는 게 남는 거야"와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들이 '사람이 세상사는 도리(道理)'라고 강조한다. 본문은 해설이 필요 없는 우리말로만 엮고, 도덕경 한자 원문과 공부 모임인 '빛살무늬(우리말한자연구회)' 회원들이 갑골문 작품과 글로 함께 했다.

신중일 기자

성공과 내면 평화 찾는 21일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
웨인 다이어 지음
안선희 번역
김영사/ 1만6800원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아버지'라 불리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숱한 문제들을 탁월한 통찰로 풀어내어 전 세계 수많은 독자에게 위안과 희망을 안겼고,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선사했다.

이 책은 그의 여러 베스트셀러에서 핵심 가르침만 모은 유일한 책으로,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허투루 쓰인 문장 없이 하나하나 주옥같아서 천천히 곱씹으며 내 것으로 녹여낼 수 있다.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부터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기 등 나를 돌보고 성장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중일 기자

"무엇이 삶을 구원하는가?"
★★★★★
오프라 윈프리가 선택한 화제의 그 책!
세상을 놀라게 만든 무고한 흑인 사형수의 뭉클한 고백
일상이 폭력인 곳에서 붓다를 만나 내면의 자유를 찾다!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의 한 무고한 사형수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456쪽 | 22,000원

순수한 아이들의 놀이처럼
일상을 놀이하듯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술이 된다!
따분한 일상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는
'놀이의 힘'
상상을 현실로 이뤄 주는 타고난 창조적 힘에 관하여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지음
권혜림 옮김
280쪽
18,000원

한때는 '나'였던 것들과의 작별,
이것이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 비결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 아마존닷컴 베스트셀러(명상·영성 분야 1위) ★★★
★★★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들의 추천 ★★★
지금 이 순간 나와 마주할 때 달라지는 것들
내면치유
융 푸에블로 지음
권혜림 옮김
262쪽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사형수가 불교를 만났을 때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
자비스 제이 마스터스 지음
권혜림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2만2천원

누명 쓰고 사형수 된 청년
불교 만나면서 새 삶 시작
감옥서 회고록 집필 출간
30년 지난 지금 무죄 여론
오프라 윈프리 등 주목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현대불교 사진DB

"나는 불교의 가르침에 담긴 진리를 실험해 볼 시간이 많았다. 영적인 수행을 통해 모든 것이 오늘 여기에 있고 내일 사라진다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명을 쓴 억울한 한 사형수는 불교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는 1981년 무장강도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퀜틴 감옥에 수용됐고, 4년 뒤 교도관 살인 공모 혐의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됐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불교를 알게 됐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간 〈붓다가 된 어느 흑인 사형수〉는 그의 자필 회고록으로 저자 본인의 이야기이다.

"수년 동안 나는 철망과 낡고 깨진 창문 틈 새로 자유라고 믿었던 것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사형수가 삶의 희망을 느끼고, 갇힌 몸으로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어느날 저자의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이 저자에게 명상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고통과 마주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후 불교 잡지에서 '죽음과 관련된 삶'이라는 글을 읽고 영적인 스승 차그두드 툴쿠 린포체를 만나면서,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의 인생은 많이 달라진다.

책은 방치와 학대, 마약중독 등 온갖 폭력적이고 예기치 않았던 불우한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한 소년의 성장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마약에 중독된 부모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위탁가정에서의 학대, 범죄에 노출된 삶, 그리고 사형수가 된 후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야기 등을 이야기한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들뜨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재미있고, 고양되는 삶의 여러 장면들이 펼쳐진다. 소설 같은 이야기는 눈을 뗄 수 없다. 〈톰 소여의 모험〉처럼 개구쟁이의 자유분방함과 모험심을,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동심을 지키려는 신념이 저자의 어린 시절에서도 그려진다. 온갖 사건들로 인해 비극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내 극복해 내는 모습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마약에 중독된 엄마를 향한 사랑, 가족들의 보살핌이 부재한 순간에 마주한 상실감, 그로 인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 등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몇 번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추락하게 되는 그는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인연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저자는 명상을 통해 외면했던 고통과 마주했으며, 모든 존재의 평화를 기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붓다의 감성을 전하며 붓다를 닮아가는 그의 삶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교도관 살인 사건 당시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를 유죄로 만든 증언들은 뒤집혔다. 그가 사형 판결을 받은 지 30여 년이 지난날의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수다. 점점 더 많은 대중이 그의 무죄를 믿고 그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페마 초드론과 오프라 윈프리, 노벨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도 그의 삶에 주목했다.

책은 한 인간의 '위태로운' 어린 시절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매개체이다. 저자 자비스에게 있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쓴다는 것은 그가 억눌러온, 파헤치기 두려운 곳으로 뛰어는 일이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 기본적인 사고력과 친절함을 잃고 잘못된 길을 택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데는 수년에 걸친 자기 성찰이 있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어른들이 방치한 모든 아이들의 아픈 성장 일기이다. 일상이 폭력이며 사방은 벽이고 창문도 하나뿐인 좁은 감옥에서 볼펜심 하나로 꾹꾹 눌러쓴 회고록은 상실과 위로 그리고 불교에서 찾은 삶의 방향을 고백한다.

마음공부, 제대로 알아야 효험 있다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펴냄
1만4천원

조사선 · 연기법 등 심도 있게 다뤄
경전 등 근거해 기존 오해들 교정

"선(禪)은 곧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본래면목인 진여자성(眞如自性)을 깨닫는 것이 곧 선이지, 선이 어떤 수행의 방법은 아닙니다. 선은 곧 부처님이 깨달으신 불법(佛法) 자체입니다. 불법은 어떤 종류의 수행법이 아니라, 법계(法界)의 참된 모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선(禪)이란 무엇인가. 신간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은 올바른 선 공부, 마음공부를 위한 안내서이다. 마음공부에 관한 질문과 선지식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문답집이다. 이전에 출간된 입문편과 심화편 상권에 이어 나온 '심화편 하권'이다.

선의 본질에 충실한 조사선이 무엇인지, 아류에 해당하는 수행법들의 문제점, 연기와 방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불법(佛法)을 보는 바른 눈을 갖추고 올바르게 공부하여 곧장 마음을 깨닫도록 안내하는 이 책은 조사선, 문자선, 묵조선, 간화선, 염불선 등 여러 가지 선의 정의, 불이중도, 공(空), 연기법, 연기법의 효용성과 한계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마음공부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끝없는 자유와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공부이다. 이 공부는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나 새롭고 낯선 길을 걷는 것이기에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바른길로 이끌어줄 좋은 안내자(스승)가 필요하다. 책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3〉은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대중에게 필요한 좋은 참고서이다.

선 공부에 있어서 스승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다. 책은 경전과 선어록 등을 근거로 많은 오해를 교정해 주고, 바른 관점을 갖추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본래의 선에서 벗어난 아류들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선의 본질이 무엇이고, 올바른 선 공부란 무엇이며, 선의 진정한 효험과 그 원리는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마음공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부작에는 많은 설명이 담겨있지만, 세 권의 책은 이론을 전하기 위한 책이 아니며, 그 모든 말을 관통하는 하나의 의도는 독자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분별망상을 벗어나 불이중도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불법의 효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우려는 것이다.

"마음이 깨달아 있을 때는 마음은 텅 비어서 알 것이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마음속에 펼쳐져 놓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에는 어떠한 분별도 없어서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이라는 분별조차도 당연히 없습니다."

박재완 기자

매 순간 놀이하듯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

아이들 놀이처럼 삶에 몰입해야
삶에 창조성 불어넣을 수 있어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
스티븐 나흐마노비치
권혜림 옮김
불광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놀이가 창조의 원천이다." 신간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는 창조의 내적 원천을 탐구한 책이다. 예술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며, 매 순간 놀이하듯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한 말이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사람이 삶과 예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성에 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창조성은 이성적 사고나 수학적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는 '무언가'라는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나흐마노비치(즉흥 바이올린 연주자)는 이 '무언가'에 접근하고 그 힘을 일상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서 '놀이'를 강조한다. 아무런 이유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와 하나가 되는 아이들처럼 자신의 삶과 일에 온전히 빠져들 때 평범한 삶에 창조적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 마음껏 뛰어놀아라.

거침없이 내딛는 발걸음을 따라 우리 내면에 깃든 창조의 영감이 샘솟게 하라. 책은 노는 법을 잊은 어른들을 동심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순수한 놀이로 되돌아가는 법을 알려준다.

책을 통해 인간의 상상력을 최대로 사용할 때 얻어지는 깨달음, 기쁨, 책임감, 평화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직관적인 음악을 비롯한 모든 즉흥 작업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삶의 특정 요소가 어떤 식으로 그 작업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모호하게 하는지, 그럼에도 결국 어떤 식으로 즉흥성을 해방시켜 자신의 진짜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실제 경험은 물론 종교와 철학의 영역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박재완 기자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선의 정수, 선시의 묘취를 맛보다!
반야의 달 띄워 보세
서울 성북동 약사암에서 경전과 선어록을 가르치고 있는 일휴 스님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인 연기와 무아, 공성을 노래한 게송시와 번역시를 모아 엮었다.
옥당 일휴 지음/신국판/양장/744쪽/값 40,000원

붓다라면 경제학 입문을 어떻게 가르칠까?
불교 경제학
자비, 무소유, 상호 의존성, 지속 가능 사회 등 불교의 관점에서 경제학을 재구성하여 자유시장 경제학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한 흥미롭고 파격적인 책!
클레어 브라운 지음/박찬국 옮김/신국판/무선/256쪽/값 1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환경보살이 돼야 지구가 살아납니다”



법만 스님은… 1982년 태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같은 해 10월 사미계를, 1986년 9월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운사에서 포교 · 재무국장 등의 소임을 맡았고 1995년부터는 참당암에 선원을 개설하고 선원장으로서 대중들과 함께 정진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8년간의 선운사 주지소임을 회향하고 불교환경연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글자를 보게 된다. 마주친 글자 앞에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지만 요새는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에 마주했던 많은 글 중에서 한참 동안 몸과 마음이 붙잡힌 것이 있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 어디서 한 번은 본 것 같고, 또 들은 것 같은 이 글을 정면으로 마주쳤을 때 느낀 전율은 아직도 깊이 박혀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연기(緣起)와 상생(相生)을 온전하게 담아낸 이 글을 만난 곳은 불교환경연대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지를 단적으로 담아낸 글에는 뭔가 단단한 신념과 의지가 가득했다.

불교계 유일의 환경운동단체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만나기 위해 고창 선운사 참당암으로 향했다. 여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암자는 단정했다. 대중들이 여법하게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느낌이다.

법만 스님은 선운사 주지 소임을 맡기 전에도 참당암에서 정진했고 8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다시 참당암으로 돌아와서도 전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를 끝내고 2015년 7월 5일 시작한 지장참회 천일기도를 벌써 세 번 진행했고 네 번째 천일기도를 하고 있다. 100여 명으로 시작한 기도대중은 700여 명까지 늘었다. 안거 때마다 10명 안팎의 수좌들이 화두를 들고 있는 참당선원의 기세도 여전했다. 수행과 기도를 강조하는 스님의 출가인연부터 확인했다.

生死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생사(生死)에 대한 의문이 컸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등이 궁금했어요. 삶과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집 근처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죠. 그렇게 지내다 대학 3학년 여름방학 때 선운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스님은 선운사에서 대중스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뒤, “스님이 되면 생사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출가를 결심했다. 스님은 선운사에 오기 전까지 철저한 불교 문외한이었다고 한다. 관련 책이라고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본 것이 전부였다.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고창읍내에서 선운사로 오는 버스가 하루 2대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시골의 한가로운 절이었지요. 그래도 참 운치 있고 좋았어요. 다만 먹고 사는 것은 참 힘들었죠. 매일 산에 가서 나무하고 밭에서 일하고 도량 청소하고 노스님들 수발하고 그랬습니다.”

스님은 출가 후 3년여 동안 전국 사찰을 둘러봤다고 한다. 어디든 가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맘 편히’ 다녔다고 한다. 그렇게 다니고 나서야 방랑기가 없어진 것 같다며 스님은 웃었다.

“사미계를 받고는 바로 선방에 갔습니다. 그땐 정말 견성(見性)하겠다고 다짐하고 갔습니다. 부처님도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듯이 저도 누구의 가르침이나 경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전도 안 봤습니다. 처음 간 곳이 통도사 선원이었습니다. 이후에 해인사와 송광사에도 갔습니다. 삼보(三寶)사찰을 차례대로 간 것이죠. 해인사 선원에는 성철 스님과 혜암, 법전 스님이 계셨고 일타 스님도 가끔 오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라성 같은 어른들 밑에 있었죠. 해인사 선원에 있을 때 공부가 가장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해인사에서 공부하던 중 어떤 경계라고 할까 그런 것에 부닥쳤습니다. 생사 없는 도리 같은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고 눈만 크게 뜨면 보일 것만 같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었어요.”

2015년 불교환경연대 대표 맡아
연기법 입각한 환경운동 전개해
녹색사찰운동으로 생활실천 유도
올 초 회원 배가 캠페인 ‘성공적’
“환경운동 통해 佛法 실천합시다”

법만 스님은 “그때 어른스님들께 점검을 받았어야 했는데, 혼자 하겠다는 생각에 끙끙 앓기만 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가 가장 아쉽고 후회스럽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몇 군데의 선방을 더 다니다 선운사에서 재무 소임을 맡았다. 은사스님을 도와 살림을 챙긴 것이다.

“선원에서 정진하면서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福)이 부족하구나. 복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행과 포교를 이어가던 중 스님은 1995년 동안거부터 참당암에 선원을 열고 수좌스님들과 함께 정진을 이어갔다. 틈틈이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을 찾아 공부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다. 스스로의 공부와 함께 대중외호에도 힘썼던 스님은 2007년 선운사 주지를 맡아 사격(寺格)을 일신했다.

전국의 교구본사 중 처음으로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조성해 승려복지를 시작했고 불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여러 곳의 고창군 복지시설을 운영했다. 또 초기불전 불학승가대학원을 열어 스님들의 공부환경을 조성했고 선운문화제를 매년 열었으며 템플스테이 등도 활성화시켰다. 고창읍내 불교회관 불사도 법만 스님이 시작했다. 조용하던 선운사가 들썩이면서 호남지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법만 스님에게 “호남에 본사가 선운사밖에 없느냐”며 부러워했을 정도. 하지만 스님은 참당암으로 돌아왔다. “선운사 발전의 토대를 닦았으니 후배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법만 스님다운 선택이었다. 참당암에서 수행과 기도를 재개할 때 찾아온 인연이 바로 불교환경연대였다.

불교와 환경, 願力과 信心

법만 스님은 2015년 가을 공동대표 소임을 맡으면서 불교환경연대와의 인연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갔다. 2019년 2월부터는 상임대표로서 불교환경연대를 이끌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2001년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창립하여 ‘삼보일배 오체투지’라는 불교적 수행법으로 거대 자본, 거대 권력으로부터 생명과 미래를 지키고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2001년 본부 창립에 이어 2008년 광주전남지부, 2018년 울산지부, 2021년 출범한 부산지부와 올해 출범예정인 전북지부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불교환경연대는 명실상부한 전국 조직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온 생명의 벗이 되는 환경보살의 길을 더욱 힘차게 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환경연대는 가장 불교적인 해법으로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찰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녹색사찰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환경과 우린 不二…온 생명을 내 몸 같이 여겨라”

12면에 이어

녹색사찰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빈그릇운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불자님들과 시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알리고 실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전하는 불교환경연대의 역사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교환경연대의 ‘고난의 행군’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교환경연대는 최근 회원배가운동을 진행했다. 법만 스님 역시 90명의 출재가 도반을 회원으로 초대했다.

“지난 1월에 전국 활동가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모시고 회원 확대에 대한 사례발표를 들었습니다. 워크숍에서 ‘생명의봄 피어라-초록릴레이’로 명칭을 정하고 4월 13일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54일간 회원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회원 1300여 명에 더해 이번에 신규회원 700여 명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아마 불교계 NGO에서 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2000명이 넘는 단체는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불교환경연대 활동과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에 대해 호응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확대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불교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苦)의 길이다. 법만 스님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예산과 사람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회원 확대를 하게 된 것이고요. 회원의 회비를 늘리고 함께 활동할 사람을 모으고자 한 것입니다. 불교환경연대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종단으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롯이 사찰과 불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보조금이 끊기면 운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몇 명의 임원이나 소수의 거액 후원자에 의존하는 것도 건강한 시민단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회원 확대를 꾸준히 하면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기후위기와 생태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환경연대 회원이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만 스님이 환경운동 활동 대중과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등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3~5일 열린 불교환경연대 전국활동가 워크숍에서 참가 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 기후위기시대 포교 방안”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운동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최선의 포교’라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緣起)와 중도(中道), 생명존중과 자비 실천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경적으로 풀어내기 시작했다.

“현재 지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 전체의 생존이 달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뿐만 아니라 무수한 다른 생명체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커다란 죄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구는 현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에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와 풍요로움으로 강과 바다, 하늘과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후 1.2℃가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이상기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물 다양성은 급격히 훼손되어 인류에 의한 모든 생물의 대멸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전 인류, 전 생명의 생존의 문제가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굳게 믿으며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성공과 행복의 척도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생명관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를 이루도록 개인과 사회가 전 지구적으로 노력하고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환경은 ‘依報’, 주체인 나는 ‘正報’
“‘依正不二’ 가르침 깊이 되새겨야”
기후위기, 소외계층에게 더 치명적
불자들 ‘不請之友’ 돼 이웃 살피야
소욕지족의 삶 전환해야 위기 극복

그러면서 법만 스님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여의여야 할 네 가지 상(四相)인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나와 남을, 인간과 비인간을, 생명과 무생명을, 존재와 비존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을 버릴 때 부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또 기후위기로 고통 받을 수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살펴야 할 의무가 불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교에는 불청지우(不請之友)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청하지 않은 벗, 누가 부르지 않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 재가불자 중에는 ‘급고독장자(給孤獨長者)’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이들에게 자비와 선행을 베풀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후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고통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불청지우가 되어 이웃을 살피고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만 스님은 ‘의정불이(依正不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환경인 의보(依報)와 주체인 내가 정보(正報)로서, 서로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우리의 몸을 이룹니다. 이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지요. 모든 존재나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우리는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자연으로부터 심각한 재난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노(怒)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입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는 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 그리고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의정불이(依正不二)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환경문제를 곧 내 문제로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님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경 스님이 제안했던 ‘공양송’을 전했다. “연기법의 가르침과 생태학의 지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이 밥은/숨 쉬는 대지와 강물의 핏줄/태양의 자비와 바람의 손길로 빚은/모든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 밥으로/땅과 물이 나의 옛 몸이요/불과 바람이 내 본체임을 알겠습니다.// 이 밥으로/우주와 한 몸이 됩니다/그리하여 공양입니다.// 온몸 온 마음으로/온 생명을 섬기겠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살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로 자연도 살고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절제하고 나와 남이 함께 유익한 자리이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이자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불교환경연대 구호입니다. 생태위기와 빈부격차 등 다중의 위기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욕망을 절제하는 소욕지족의 삶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만 스님은 인터뷰 내내 차분했다. 오랜 기도와 수행에서 나오는 불교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명확했다. 출가 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준 성과 그대로, 앞으로도 만들어 갈 법만 스님의 ‘그림’들이 기대된다.

유철주 / 작가



대행스님과의신행문답

생활속의 불법수행

주인공主人空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길을 묻는 이들에게 건네는
차 한 잔의 법문

Q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 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도리인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⑮ 경주 남산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

▶한줄 요약
경주 남산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은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전시 때문에 경성으로 이운된 이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통일신라 불상은 왜 박물관에 있어야 할까

해인사 홍제암 입구에는 한국 호국불교를 대표하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이었던 사명대사(1544~1610)의 비문 석장비가 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일반 백성 일반 사람들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죽음의 공포와 기아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때 조선의 스님들은 모두 살생을 해야 하였기에 지옥고에 떨어질 각오를 하고, 칼을 들고 맞서 싸웠다. 조선을 지키고 백성의 목숨을 지킨 스님들이 무장하고 왜군과 맞서 싸운 호국불교는 지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석장비는 조선 승병을 대표하던 사명 대사가 입적하자 광해군이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라는 시호와 함께 세워준 비문이다.

사명 대사의 석장비는 숭유억불의 조선에서도 기리려 했던 호국 승병의 대표적 활약상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면 한 친일 승려에 의해 4조각으로 깨져서 버려졌으며, 지금은 수습해 놓았으나 아직 깨졌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상징성이 강한 문화유산은 이처럼 억압받는 시대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천덕꾸러기처럼 깨지고 버려져야 할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집단의 성격이 바뀌면 자긍심을 돋보일 그리고 가꾸고 알려야 할 문화유산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떤 문화유산의 유구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품격과 관심과 대우가 달라진다. 이것은 상식적인 당연한 소리일 것이다. 즉 문화유산 성격 규정은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지금 용산 소재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에 개관하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400만 명이 방문한 세계 6위의 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어 있다. 박물관은 어릴 때부터 자주 갔던 곳이다. 지금도 자주 가는데 3층 불교조각실은 무조건 들른다. 스님이면 당연하다 하겠지만 고려 이전 최고의 불상이 모셔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상 대사의 유지를 받든 화엄십찰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화엄을 대표하던 서산의 보원사지 금당에는 웅장한 방형 기단이 있다. 불교조각실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보원사지 금당에 모셔졌던 철불이 거친 웅장함으로 보는 눈길을 매료시킨다. 건너편에는 경기 하남의 하사창동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철불 중 가장 큰 불좌상이 있다. 좌우의 웅장하고 거친 철불의 매력에 압도당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앞 통일신라 석불의 아름다움에 빠져든다.





경주 남산 삼릉계 석조약사여래좌상의 유리건판 사진(왼쪽)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된 모습.(오른쪽) 예경의 대상인 불상이 박물관 전시물로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한다.

정면에는 경주 감산사지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귀족 김지성이 719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조성한 미륵보살입상과 아미타여래입상이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뒤쪽에 명문이 있는 광배와 불상은 하나의 돌이며, 조각의 섬세함과 뛰어남은 따라올 불상이 없을 정도다. 오른쪽에는 통일신라 800년대 후기 조성된 10대의 얼굴인가 싶어 아직 어린티가 가시지 않은 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그리고 건너편 좌측에는 오늘의 주인공 경주 남산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다.

그런데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서 있거나 웅크리고 앉아서 쳐다보면 눈두덩이가 엄청나게 부풀어있다. 800년대 전후 조형미가 최상에 이르렀을 때의 불상인데 의도적으로 눈구덩이를 부풀어 오르게 조각한 것일까? 처음 보았을 때는 통일신라시대 귀티 나는 인물상은 이런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석조약사불좌상의 사연을 알고 난 지금은 슬피 울어 부풀어 오른 눈구덩이로 보여 착잡한 심정이 든다.

동남산에서 삼릉계 석조여래좌상을 지나 더 오르다 보면 석조약사불좌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보인다. 건너편 경사진 언덕 위에 원래의 자리가 남아있다. 상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은 일제강점기 때 넘어지거나 불두가 손상된 흔적이 없이 발견된 불상이다. 얼굴과 어깨의 웅장함과 광배의 화려함 그리고 중대석 8각마다 타원의 음각에 양각으로 불보살과 향로를 조각한 장식은 800년 전후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전시되며 불상 유랑 시작…현재 國博 전시 문화유산 이전 예경 대상인 '성보' 불상 의미 바르게 살필 수 있어야

삼릉곡 석조약사여래좌상은 1914년 남산에서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를 경복궁에서 진행하였는데, 이 행사를 위해 장식품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때부터 참배와 순례의 대상인 불상은 구경거리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사여래부처님은 지금도 참배와 순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주 남산 삼릉곡 원래의 자리를 알지만, 누구 하나 다시 모시려 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렇기에 너무 울어 눈구덩이가 부풀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의 안타까움일까!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을 보면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은 원래의 장소와 모습이 확인된다. 모습을 보면 남산 삼릉곡 탁 트인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중생을 보살피시던 부처님이었다. 이 세상 중생들의 아픔을 달래주던 약사여래 부처님이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었다. 약사여래 부처님은 동방 세계 약사유리광여래란 명칭을 갖고 있다. 또한 중생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가장 큰 의사 부처님인 대의왕불이란 명칭도 있다.

그래서 중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왼손에 약함을 들고 있는 부처님이다. 〈삼국유사〉에는 선덕여왕이 병이 나자 〈약사경〉을 봉독하고 나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755년 경덕왕이 분황사에 30만 6700근이 나가는 약사 여래상을 안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한국에서 약사여래 부처님은 7세기부터 중생을 치료하는 부처로 여겨지며 숭배의 대상으로 모셔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의 '신주제6-밀본최사'와 '탑상제4-분황사약사'의 내용이다.

선덕왕(善德王) 덕만(德曼)이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는데,(…)밀본은 신장(宸仗) 밖에서 〈약사경(藥師經)〉을 읽었다. (…)왕의 병이 이에 나았는데.

분황사(芬皇寺)의 약사여래동상(藥師銅像)을 주조하였는데 무게가 30만 6천 7백 근이요.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는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를 대표하는 웅장하고 멋진 석불과 철불이 있다. 그런데 기원과 예를 올릴 방법이 없어 참배와 순례의 대상이 아닌 관람객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중생의 아픔을 치료해주시는 웅장하고 멋진 부처님이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 전시되고 있다. 원래의 위치를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장소가 마땅하지 못하다면 박물관에 보존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다.

보원사지 철불, 감산사지 입상과 함께 삼릉곡 약사여래불좌상은 원래의 자리가 확인되는 불상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야 많은 사람이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를 참배하고 순례하며 부처님을 뵙고 아픔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국 박물관에 있는 원래의 자리를 아는 불상은 참배와 순례의 대상으로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러한 원력은 이어져서 박물관에 유물로 전시되는 부처님이 원래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신심과 아픔을 달래주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경주 남산의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을 부처님 세상 불국정토를 다시 이루도록 모셔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의무이며 책임이며 숙제이고 이루고 싶은 꿈이다.

불교문화유산 불상은 보존의 대상이기 이전에 참배와 순례의 대상이다. 일반적인 문화유산은 보존이 원칙이지만 문화유산이자 성보(聖寶)인 불상은 참배와 순례, 그리고 신앙의 특수성이 보존보다 앞서야 한다. 박물관 전시물로 전락한 불상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불상은 대중에게 구경거리인 문화유산으로 인식될 뿐 불교 성보로서 참배와 순례의 가치는 사라진 상태이다. 이것은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할 한국 불교의 숙제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내 주치의 의료기가 내곁에~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3호 | 15 | 전면광고

분에 넘치는 큰 이익을 바라지 마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왕삼매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남사천
- 대지 : 27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매가 : 3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법당 : 100평
- 시내공원앞
- 주차가
- 매가 : 12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2387, 화룡사
- 가액 : 3천 2백만원

기타 문의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

010-6688-994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 건평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7억 5천만원

010-6898-911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 1길 33-12
- 대지 : 320평 법당15평 요사40평 별채15평(건물 미등기)
- 난방 : 가스
- 가격 : 1억 내린 2억9천(급매)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3호 | 16 | 전면광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좋다 싫다를 모두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제주 무료숙박 안내 (2박3일, 3박4일)

제주 풍차와 석양이 아름다운 절경
한경면 신창리에 요사채를 무료개방합니다.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림하시는 하루는 재능기부나 농어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도님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 62번지 / 대한불교 칠보사 주지 일허 합장
백년여행사 010-6236-113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010-9573-4180

제1기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모집공고
(팔공산 범음범패 교육원)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도 가능
- 불교신자 또는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초기반 도량석, 종성, 예불, 삼보통청, 예불의식(법회 집전의식)
- 전문반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 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목탁, 요령, 징, 북, 바라, 작법, 의식이론 등)

교육일정 - 초기반 개강 2024. 8. 26(월) / 수료 2025. 1. 21(화)
- 전문반 개강 2024. 8. 27(화) / 수료 2025. 1. 21(화)

교육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법당(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종무원 298-3634 / 교무국장 법륜스님 010-9233-8371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말기암 3개월안에 열명중 9명이상 전혀 부작용없이

깨끗이 암덩어리가 소멸되는 발명특허의료기

암의 발병원인은 반드시 척추신경이 눌려서 옵니다.
저희회사 의료기만이 유일하게 올바르게 척추를 해줄수 있습니다.
하여 제대로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고려대학교 병원과 일산 동국대학병원과 여러대학병원에 임상실험을 의뢰하였으나 임상실험을 해주겠다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암환자분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환우여러분 또한 중증치매환자 가족여러분
한번만 저희 체험관을 방문해주세요. 증명해보이겠습니다.

개발자약력
한의사 수백명에게 새로운 올바른 척추교정법을 전수하였으며 골타요법 척추진단교정학회로 발족되었으며 2012년 9월12일 MBN방송 천기누설에 한의사제자와 양의사제자와 함께 출연하여서 척추형태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요근래 말기암 신속히 소멸되는 나무나 쉬운 자가치료법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문의 연락처 010 6575 7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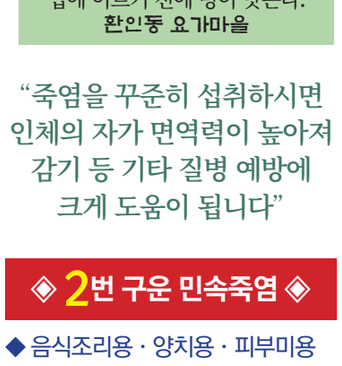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 채 상병을 추모하며



이안의 Media In Buddha

㊹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감독의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한 장면.

전쟁고아 돌보다 산화한 해병대원들 희생 그려
무책임한 명령 희생된 ‘채 상병’ 돌아오지 못해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 해병’ 돼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귀신도 잡는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 나라 최고로 끈끈한 소속감으로 뭉친 집단이라고 한다. 바로 ‘해병대’다.

국방의 의무로 징병제가 의무지만, 어떻게든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게 특권인 사회에서 일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훈련과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그 해병대를 일부러 자원해서 가는 청년들이 꾸준히 있다는 것도 놀랍고, 곱게 키운 자식이 해병대에 가겠다는 걸 걱정은 숨기고 격려로 나라에 내어주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도 놀랍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들을 볼 일은 별로 없다. 그들의 부대는 바다와 육지를 아우르는 험한 곳에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큰일이 닥치면 늘 그들을 보게 된다. 폭설이 내려 길이 막히면, 산사태로 어딘가 무너져 사람들이 위험하면, 장마나 태풍으로 마을이 잠기면 그들이 나타나 힘을 쓴다. 길을 뚫고, 바위를 치우고, 흙탕물을 헤치고 빨간 모자, 얼룩무늬 위장복 차림의 청년들이 누군가를 구해내는 것을 이 사회는 당연하게 누려왔다. ‘대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방’, 무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대 본연의 일 말고 민간에 생기는 온갖 험한 일을 맡아 사람들을 돕는 대민지원은 언제부터 이들의 몫이었을까?

100년이 넘는 한국영화사에서 1990년 영화진흥공사가 영화관계자와 관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6.25 소재 영화’로 응답자 전체의 12%가 꼽은 영화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감독, 1963년)이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아마 처음부터였을 것이다.

해병대가 1949년 4월에 창설되었으니 생기고 1년 만에 6.25를 맞았던 해병대의 대민지원이 전쟁 내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전쟁이 끝나고 겨우 10년 지난 시기에 군인으로 6.25를 겪어낸 당대 최고의 감독이 당대 최고의 연기자들을 출연시켜, 당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급으로 만든 영화의 중심이 ‘대민지원’이었을까?

1950년 서울,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에 진입한 해병대 분대장 강대식(장동휘)이 이끄는 분대원들이 치열한 시가전 상황에 휩쓸려 고아가 된 영희(전영선)라는 아이를 구하게 된다. 아이는 구했지만 아이의 엄마는 죽었고, 전투가 끝난 후 진입한 건물 안에 학살당한 민간인 가운데는 분대원 가운데 한 병사의 누이도 있었다. 계속해서 북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귀신도 때려잡을 이 해병들은 전장을 떠날 수 없고, 영희는 당장 갈 곳이 없다. 당장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엄마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본 아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해병대원들 뿐이다. 그래서 분대원들은 영희를 마대자루 속에 숨겨 데리고 다니다가, 대대장에게까지 허락을 받아 분대의 마스코트 명예 해병대원으로 입대시키기까지 할 정도로 아낀다. 그러나 이 배려는 전쟁 중의 한겨울,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깜짝 이벤트였고 이제 영희를 보살피던 분대는 최전방으로 가야한다. 영희를 대대본부에 맡기고 최전방에 투입된 이들은 대부분 영희에게 돌아오지 못한다. 10만 인해전술로 밀어 닥치는 중공군 앞에서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우를 지키기 위해, 영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이 시기 한국 전쟁영화는 오락이나 시각적 쾌락이 아니라 경험의 재구성이었다. 감독도 배우도 관객도 모두 그 전쟁을 겪었던 전우였고, 난민이었고, 생존자였다. 그러니 영화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허구가 아니라 재현이었고, 과장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며,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실린 마음도 뜻도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을 것이다. CG나 VFX 등의 가상의 효과가 없던 시절에 등장 인원이 1만 4500명, 동원된 엑스트라가 연 10만 명, 탱크, 군용기, TNT 1500발과 뇌관 5000여 개를 폭발시켜가며 실제 해병대원들이 아득한 산등성이를 휘덮고 황량한 겨울 들판에서 쏟아지듯 달려드는 압도적 스펙터클은 자본의 힘이 아니라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고, 전쟁 속에 ‘인간’을, 특히 ‘아이 하나라도 귀하게 지키려던 병사들의 희생’이 어떤 정치인이나 지휘관의 고함보다 영웅적이라는 것을 영화 안에 담으려는 감독의 진심과 연기자들의 열연은 그들이 구해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한 간절함으로 가득하다.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우연히 거두게 된 고아 아이 하나가 안전할 세상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 해병대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슬퍼할까봐 걱정한다. “나도 너희들만큼 살고 싶다. 내가 잘 싸운다면 그건 살기 위해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 도락이 아니야! 살기 위한 최악의 수단이야. 내게도 부모가 있고 처자가 있다. 총을 들고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삽을 들고 흙과 싸워 효도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절절한 말로 출전을 명령하는 분대장(장동휘)이나 “영희에게 모두 무사하다고 전해라. 아기에게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어느 곳이든지 오빠와 아저씨들이 살고 있는 거라고 영원히 생각할 수 있게 말이야”라는 유언을 남기는 구 해병(구봉서) 같은 이들의 목숨을 건 ‘대민지원’ 덕분에 영희는, 우리는 안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이제 더는 교전이나 전쟁고아가 없는 세상에서도 이 나라는 여전히 해병대에게, 그리고 많은 병사들에게 ‘대민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마치 그들이 언제라도 동원 가능한 자원인 것처럼. 스물 남짓한 청년들에게 구명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고 사나운 물길 속에 맨몸으로 들어가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 어찌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해 이맘때, 무책임한 명령으로 ‘대민지원’에 내몰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1년이 다 되도록 희생된 채 상병의 명예도, 제대로 된 순직 사건을 조사하라는 해병대 전우들의 요구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외려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단장을 순직 사고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희생된 병사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박정훈 전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어머니인 김봉순 포항여성불교연합회장은 늘 소신껏 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완벽하게 완수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복무해왔던 박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몰려 보직해임되자 “부처님과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부정한 일은 소멸되고, 정의를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안타까워하고, 시민 대중들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정치가 홍수보다 더한 재해가 되는 세상에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당신은 포탄 속을 묵묵히 전진하는 병사들 편이었고, 좌절을 알면서도 인간의 길을 가는 연인들 편이었고, 그리고 폭력이 미워 강한 힘을 길러야 했던 젊은이의 편이었다.”

소설가 김승옥이 이만희 감독의 묘비에 바친 이 헌사처럼 우리가 채 상병을 애도하고, 박정훈 전 대령과 예비역들의 옆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 청년들을 ‘대민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낼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어떤 병사도 ‘돌아오지 못하는 해병’이 되게 하지 말라.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㉙

1. 우리는 살다보면 많은 잘못과 허물을 짓게 된다. 악한 일도 저지르고 남에게 상처도 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는 불교 수행법은?

① 참회 ② 예불 ③ 참선 ④ 운력 ⑤ 보시

해설 : 자신이 지은 잘못과 허물을 뉘우치고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예불은 부처님과 성현께 예를 표하는 것, 참선은 선수행을 닦는 것, 운(울)력은 공동생활을 위한 노동, 보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르침(법보시), 재물(재보시)등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2 불교 신앙(信仰)과 신행(信行)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불교에서의 신앙은 불·법·승 삼보를 우러러 믿는 것이다.
②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자에 대해 무조건 신앙하는 것이다.
③ 신행은 믿음의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체득하는 것이다.
④ 신앙이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신행은 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다.
⑤ 절, 염불, 주력, 참선 등의 모든 불교 수행은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지므로 믿음과 실천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

해설 : ②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는 불교의 신앙과 신행의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법해주신 진리를 닦아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종교로 무조건적인 신앙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3.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경전을 보고 마음에 새겨서,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밝혀 깨달으려는 불교의 수행방법은?

① 간경(看經) ② 참회(懺悔) ③ 주력(呪力) ④ 참선(參禪) ⑤ 염불(念佛)

해설 : 참회는 자신의 행동 중 잘못된 바를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주력은 특별한 힘을 가진 언어인 다라니를 외우거나 반복하는 수행이다. 참선은 선수행을 닦는 것을 말하며 염불은 부처님의 명호(이름)이나 상호(모습)을 반복하여 부르거나 떠올리는 수행이다. 간경은 경전을 보아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는 수행을 말한다.

4. 불교에서 추구하는 발원(發願)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소원성취를 구원하기보다는 성취의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② 대립과 분열보다는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을 추구한다.
③ 보편타당한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덕목이다.
④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에너지를 생명창조의 방향으로 전환한다.
⑤ 끌려 다니는 원생(願生)이 아니라 업생(業生)으로 나아가게 한다.

해설 : 발원은 서원을 세운다는 뜻으로 서원이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뜻이다. 불교의 서원은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에 있으며, 이 행복은 보편타당한 삶의 지향점을 찾는 과정에 있고,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웃 생명들에게 이로움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며 성취의지가 강조된다. 발원에 의해 업생에서 원생으로 전환된다.

5. 참선할 때의 기본자세인 좌선(坐禪)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척추를 바르게 하고 허리를 펴며 반가부좌 또는 결가부좌로 앉는다.
② 시선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려서는 안되며, 코끝을 향하면 된다.
③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서로 맞대어 타원형이 되게 한 다음 단전 부분에 댄다.
④ 몸은 안정된 자세를 갖추고 눈은 가늘고 길게 내리떠서 졸음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⑤ 호흡은 반드시 입으로 하여 단전까지 내렸다가 편안하면서도 가늘고 길게 내쉬도록 한다.

해설 : 좌선을 할 때에는 입보다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권장된다. 나머지 보기는 좌선방법을 훌륭히 잘 설명하고 있다.

6. 보현보살의 열 가지 큰 서원은 부처님에 대한 끝없는 예경, 찬탄, 공양으로 시작된다. 보현보살의 서원을 실천하는 불자의 생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환경 보호와 관련 없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
②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내놓는다.
③ 늘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④ 술을 마시더라도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⑤ 이성을 존중하고 성(性)을 쾌락의 도구로 여겨 음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해설 : 보현보살의 큰 서원은 무조건적인 이타심과 계율의 준수 위에 세워진다. 그럼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생필품이라도 물건을 보시하고, 불음주를 지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불사음을 지켜 성을 쾌락의 도구로 여겨서도 안된다. 늘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답 : 1. ① 2. ② 3. ① 4. ⑤ 5. ⑤ 6.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⑮ 니까야 ③

▶한줄 요약
부처님이 설한 경전을 읽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문 스타일이 문답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사람과 만나 문답을 하다보면 왕왕 진상도 보이는데, 이들을 부처님은 다양한 경험과 비유를 통해 어리석음을 일깨운다.



붓다는 언제나 사람과 만났다



그림 · 최주현

세상에 널린 진상 중생

경전을 읽다보면 항상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의 법문 스타일이 묻고 대답하기, 즉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긴 법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부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말은, 경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거룩한 신심으로 다가와서 엎드려 가르침을 받들어 모시는 제자와 신자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부처님 말씀이라 우겨대거나 난 죽어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거라는 제자도 있고, 자기 궁금증을 늘어놓고는 어서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치며 대답해주지 않으면 제자노릇 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요.

온갖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속을 끓이는 뉴스를 볼 때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떠오릅니다. 경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진상 중생이거든요. 하지만 진상 손님들 때문에 마음을 다쳐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사이트에 하소연하는 우리네 자영업자와는 좀 다릅니다. 부처님은 '아프니까 이렇게 내게 왔지'하는 마음으로 그걸 또 다 받아줍니다.

요즘 내가 자주 강의하는 초기경전 〈맛지마 니까야〉에 등장하는 온갖 진상 '손님'들 가운데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 두 편을 짧게 소개합니다.

죽어도 오후불식은 못한다는 제자

"수행승들이여, 나는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병이 없고 건강하고 가뿐하며 몸에 힘이 있고 편안하게 지낸다. 그대들도 밤에 음식을 먹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병이 없고 건강하고 가뿐하며 몸에 힘이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 부분을 읽으면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지금의 야식문화를 미리 내다보신 것 아닌가 하여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 옛날, 음식이 변변치 않았을 그 시절에도 부처님은 밤에 음식을 먹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부처님이 아주 많이 강조한 것이 '때, 시기'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기에 적절한 때! 바로 그것을 잘 헤아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처님이 특히 신경쓰신 때(시기)는 음식을 먹는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한 끼 식사 말고는 그 외에 먹는 음식은 전부다 때 아닌 때에 먹는 식사(非時食)이라고 규정했지요. 정오가 지나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후불식(午後不食)도 부처님의 전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 먹지 않으니 오히려 몸이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조언을 따라서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앗싸지와 뿌납바쑤까 두 사람이 거부합니다. 여러 동료들이 말렸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녁에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낮 동안에도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병이 없고 건강하고 가뿐하고 몸에 힘이 넘치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아니, 대체 왜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외면하고 미래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까? 여러분도 우리처럼 하루에 세 번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배불리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느긋해지고 살도 통통하게 오르는데 이런 눈앞의 이익을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결국 부처님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합니다. 부처님의 일처리 방식은 문제의 당사자를 늘 불러와서 그의 면전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은 먹어야 살맛이 난다고 주장하는 제자 두 사람이 불려왔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사실 확인을 한 뒤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득합니다.

"내 말 들어! 너희는 제자고 나는 스승이야. 감히 내 충고를 거부했다고?"

이런 식의 으름장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먼저 집에서 집이 없는 곳으로 나아간 수행자, 그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 권하는 수행법과 교리를 다 접한 뒤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함을 체험하고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 스스로 깨어난 존재, 붓다는 진리를 찾아 길을 나선 사람들을 대신해서 종교적 방황을 먼저 하였고, 그렇게 하나씩 깨달은 이치를 들려주면서 뒤따라 집을 나온 구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붓다가 만난 사람 중엔 진상 많아
오후불식 안하겠다는 두 제자에겐
자기경험 통해 수행자 자세 일깨워
긴 법문 음미하는 게 니까야 매력

이런 스승에 대한 믿음을 지니지 않고 있다면 스승이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스승으로서의 자신이 실천해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강요한 적이 있는지 차분히 묻습니다. 그리고 수행자의 일곱 단계를 들려주면서 스승을 향한 믿음이 구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러주지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두 제자의 정곡을 콕 찌릅니다.

"그대들은 길을 잃었고, 그대들은 잘못된 길에 빠졌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대들은 가르침과 계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법문을 마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알려고 열망하는 믿음 있는 제자라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에게 자양분을 줄 것이고 활기를 줄 것이다."(MN.70 끼따기리 설법의 경)

스승이 제자를 설득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불교 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읽고 곱씹으면 불교가 무엇을 말하는 종교인지,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무작정 "좋은 말씀이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들려주는 긴 법문을 거듭 거듭 음미해보는 일, 이것이 초기경전을 즐기는 나만의 방식입니다.

붓다가 육식한다는 소문 전하는 의사

부처님에게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지바까(Jivaka)라는 의사인데,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세상에 떠도는 소문 한 자락을 들려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정황을 다 알면서도 그 음식을 드신다고 세상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이런 소문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이 아닌 말로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설마, 설마 하면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며 결국 사람들은 소문을 믿어 버립니다. 이런 말이 처음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어쩌면 무심코 과장되게 말했거나 부처님을 향한 세상의 존경에 샘이 난 이교도가 짐짓 없는 말을 지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특별한 것 같지도 않지만 점점 부풀려지지요.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소문의 여신 이름은 파마입니다. 이 여신은 숨어 있던 장소에서 처음 나올 때는 아주 작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걸을수록 힘과 체구가 점점 커져 하늘에까지 닿는다고 하지요. 이 여신에게는 침묵을 모르는 입과 항상 쫑긋 선 귀가 달려 있습니다.(〈구스타프 슈바브의 그리스로마신화〉 제3권에서)

소문의 여신 파마 때문인지 세상에 이런 말이 떠돌았고 주치의 지바카는 이런 소문을 부처님에게 고하면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청합니다. 분명 그는 이 일을 통해 아름다운 가르침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부처님의 대답은 길고도 친절합니다. 부처님은 당신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고기는 일체 먹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구도자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못을 박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수행자 자신을 위해 죽인 고기가 아니라면 육식이건 채식이건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것이 탁발의 기본정신입니다. 이때 수행자에게는 허물이 있는 음식이 있고, 허물이 없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수행자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우정 어린 마음(자), 연민과 공감(비), 기쁨(희), 담담한 평정심(사), 이 네 가지가 있다면 허물없는 음식을 먹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붓다와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허물없는 음식을 먹는 사람임을 들려주면서 법문을 마칩니다.(MN.55 지바까의 경)

고의로 생명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마음 가득 자비희사를 품는다면 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식사라는 것이지요. 이 법문을 들은 지바까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처님을 어떻게 믿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 당신을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실 것을 다시 한 번 맹세합니다."

부처님의 법문 하나하나가 어떤 배경에서 펼쳐지는지 이해하면서 읽으면 내 마음도 지바까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찹니다. 초기경전이 지닌 매력이 이런 것입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건 무한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 한마디, 짧은 말이지마는 똑똑히 들으세요. 공부하는 분들이 보는 걸 위주로 하고 듣는 걸 위주로 하고, 모두 그렇게 뚫어지게 꿰뚫어서 보는 거를 아주 위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에 "보는 것도 놔라. 듣는 것도 마음에 놔라." 이러는 원인은 대자비의, 만법의 기능을 가진 그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는 소소한 거를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요런 거를 다 놓음으로써, 즉 말하자면 안 되는 거 되는 거, 요건 요렇게 돼 있고 요건 요렇게 돼 있고, 팔자는 요렇게 돼 있고 죄는 요렇게 지어져 있고 요런 문제들을 갖다 놓고 볼 때에, 그러면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요건 죄를 요렇게 지었으니까 요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 놓은 거니까 꼭 자기네들이 받아야만 할 겁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5년 징역을 받았으면 5년 징역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놔라. 꿰뚫어 보는 거까지도 다 놔라. 꿰뚫어 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놔라." 이런 것은 5년 징역을 받을 팔자도 징역을 안 받는 것도 묵살해 놓고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팔자 운명이 붙지 않는 자리니라. 부처님 자리에는 어디의 뭐든지, 일체 만법의 근원에는 닥치는 대로 타 버리느니라." 이런 문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남들은 꿰뚫어 본다는데, 남은 벌써 다 안다는데….' 아, 이거를 원하거든. 자기에게는 그런 게 외려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이 오는데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다 알아도, 희미하게 알든 꿰뚫어 보게 알든 그것은 놔야 돼. 우리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지, 가는 길에 이것이 보인다고 해서 이거 참섭하러 가는 게 아니야, 응? 얘기했죠? 가는 길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물이 있고 여기 흙이 있고 이런 거를 보고 듣고 이렇게 끄달리러 가는 게 아니야. 곧바로 지금 가서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없게 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는 자유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어찌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걸 위주로 해서 가느냐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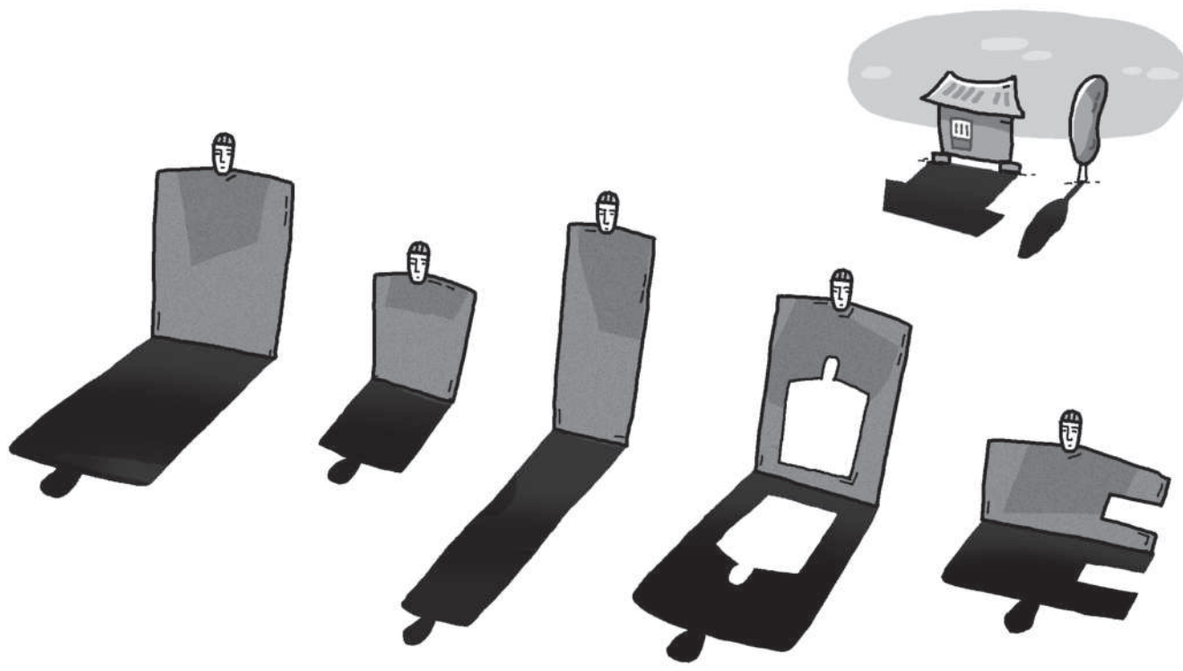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사람이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서 참 어렵게 살던 중에,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요양을 갔는데, 누가 말하기를 거북이 목을 따서 피를 내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했대요. 그 말을 믿고서 저 바닷가에 원두막 천막을 쳐 놓고선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거북이를 그저, 지금이야 드물지마는 예전이야 좀 많았습니까? 고기도 많고 조개도 많고 뭐, 많았죠. 거북이 엉금엉금 기는 거 다 잡아다가 모가지 따서 그냥 피를 먹은 거야. 그러곤 휙 내던지고. 피 빨아 먹곤 휙 내던지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준수한 스님 한 분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 말고 거기 앉아 계시더니 하는 소리가 그 젊은 사람더러 "젊은이!" "예." "자네는 죽어서 꼭 거북이가 되겠네." 그러거든. 그래서 "어째서 그러합니까?" 하고 물으니 "자네가 모르겠나, 그거를? 남의 생명을 그렇게 앗아 갔으니 자네도 거북이가 돼서 그 생명의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나? 자네는 천 년을 그렇게 갚아야 사람이 될까 말까 해. 사람 되기가 얼마큼 어려웠다는 거를 자네가 짐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러한 문제가 있네. 자네 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앗아 가다니 자네가 천 년을 도를 닦는다고 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할 것일세." 하고 보니까 벌써 없어져 버렸거든.

그런데 그 얼굴 모습이랑 그 스님의 준수한 모습이 자기한테서 떠나질 않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야. 여북하면 어머님더러, 그렇게 듣고 가서 하는 소리가 "어머님, 어머님이 나로 인해서 그러한 죄상을 지으신 거니까, 어머니가 짊어지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의 그 죄상까지도 제가 다 짊어지고 가렵니다." 하고 그냥 물로 풍덩 들어간 거야. 물로 풍덩 들어가니까 용왕이 "너는 거북이로서 천 년을 지내되, 네가 남의 생명을 앗지 않고 천 년을 지내야 하느니라." 그러니 거북이로 천 년을 남의 생명을 앗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잡아먹고 사는 건데 하나도 잡아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소?

자기는 그래도 선뜻 대답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북이의 몸을 받아 가지고서 돌 밑 아니면 흙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물 위에 뜨지 않고, 뜨면 또 그 빛도 못 갚을까 봐, 또 거북이의 몸을 잡아먹히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땅속에 깊숙이, 또 모래 속에 깊숙이, 또 때로는 돌 밑에 깊숙이 들어 있으면서 앙금을 먹어 가면서 산 거야, 앙금! 물속의 풀이 썩은 앙금 또는 모든 산 생물의 그 앙금, 또는 이런 거품 내보내는 거, 그런 거를 먹고 그대로 사는 거라.

배가 고플 때는 모래를 집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도중에, 사람으로 치면, 즉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살았으면 서양에 가서도 살고 공부를 해야 하고, 서양에 갔으면 동양으로 가야 하고 동양에 갔으면 남양으로 가야 하고 그렇기에 천방지축 어딘지를 모르고 그 물이 있는 데는 다 거치면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또 태어나고 잡아먹히고 또 태어나고 그러기를, 천 년을 그렇게 반복했다는 거야. 반복해 가지고 오백 년이 지나니까 오백 년을 또 지낼 텐데 그 오백 년 동안에는 자기 몸이 점점 점점 잡아먹히질 않고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천 년 만에는 참 무지하게 커졌더랍니다.

그래서 인제는, 내가 이것을 이래도 다 못 갚았으니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목을 따서 피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 위에 풍덩 떴단 말이야. 그 큰 놈의 거북이가 뭉텅 뜨니까 아, 고기잡이들의 그물에 턱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니까 이 고기잡이들이 그걸 따 먹지도 않고 또 잡아가지도 않고, 그냥 펄펄 뛰니까 아, 그 입을 벌리고선 자기네들 먹던 술을 먹인 거야. 취했지. 취해서 아무 정신도 없는데, 그렇게 해 가지곤 또 물에다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하! 내가 아직까지도 그 죄가 남았구나.' 하고서는 또 깊숙이 들어가서 지내던 중, 예전에 사람으로 살 때의 그 스님 얼굴이 그 맑은 물에 탁 비치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인제 다 됐느니라. 어서 저 모래톱으로 나가거라." 하거든. 그러면서 그 스님의 모습이 싹 없어지니, 야, 그 스님이 육지에서도 보였고, 천 년 만에 또 물속에서 보였으니 그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래서 스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듣고서는 다시 모래톱으로 엉금엉금 기어 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 19면에서 계속

오니까 어느 준수한 사람이 오더니 거북이를 탁 보더니만 아, 거북이를 갖다가 네 쪽을 내서 물로 홱 팽개치거든, 네 쪽을 내서. 그게 무슨 연고냐 이거야, 또. 그래 이걸 칼로 잘라도 껍데기가 두꺼워서 안 잘라지는데 확 뒤집어 놓더니 그냥, 그냥 네 쪽으로 잘라서는 휙 물에다 팽개치면서 하는 소리가 "인제 몸뚱이째 다 바쳤느니라." 그러고선 "아예 시신도 없다." 하고선 손을 번쩍 들면서 물로 다 팽개쳤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자기는 홀연히 인간의 탈을 다시 쓰게 됐고, 환생으로서 어느 준수한 집에 태어났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가 태어나고부터 그 집에 가난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또. 그런데 그 어린애가 16살이 되니까 아, 그때에 보았던 스님 모습이 또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얘를 집안에다 두면 집안이 점점 망하니 내게 달라." 그러더랍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맏아들로 낳았는데 맏이를 어떻게 주느냐.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팔자겠지. 얘가 있어서 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니까 "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하더랍니다. "얘 대신 얘 동생이 맏아들 노릇을 하고 또 얘를 나한테 주면 당신네 집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내게 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 인도환생을 한 그 사람은 그 스님을 좇아서 절로 갔습니다.

근데 절로 간 것까지 요렇게 해 두고, 거북이로서 사람 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간단히 말한 거지마는 먹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거북이가 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워. 사람도 살기보다 죽기가 아주 쉽다 이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보다도 죽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괴롭히지 않고, 남의 신세 안 지고, 아프지 않고 또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러분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기가 더 어렵죠? 그렇게 죽으려면 어떻게 죽느냐고 할 겁니다. 회향이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 되기도 어렵지만 회향이 어렵고, 즉 말하자면 사람이 동물로서 태어나는 것도, 이런 어떠한 미물의 짐승이라도 사람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만이 인도환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인간 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뱀이나 소나 개나 고양이나 날아다니는 짐승, 새들도 사람을 보지 않은 새는 몇 바퀴를 새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봤어야지, 응? 봤어야 어떻게 이 진화가 되지, 보지 못한 거는, 우리가 음식도 보지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거는 생각조차도 나지 않죠. 우리 범위 내에서 아는 것만이 생각나지 보지 못한 거는, 모르는 건 통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뱀도 인간이 먹는 간장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럴 수 있어야, 눈에 띄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인도환생을 한다는 겁니다. 소도 그만큼 인간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시봉을 해 가지고 그 고생을 해 가지고 소를 면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환생하기가 어려운 그 고비를, 고비를 천 년을 닦아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이 오늘날에 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참, 진실하게 발견해야 할 그 문제를 놓고 왜 만날 그저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왜 자기 자신의 그 스승을 믿지 않고,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자기 스승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느냐.

사람이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무한의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는 것입니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 아닙니까? 동물이나 이런 것은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졌습니다. 망하게 생각을 해도 자유권이요, 또 잘되게 하는 생각을 가졌어도 자유권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데 자기 자유권을 갖고서 자유스럽게 자기 생각을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상이라고 한다 이거야. 망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끄달린다고 하면서 아주 진저릴 치거든. 왜 진저릴 쳐? 생각나는 대로 그것이 어디에서 하는 건데? 자기, 바로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주인이란 말이야, 응? 자기 주장자며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며 바로 우주의 근원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그걸 믿지 않고서 그 생각 생각, 생각나는 거를 우리가 망상이라고 할까! 그거는 인간이 부처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과정을 거치는 거지 그건 고가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이 저녁 먹을 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계시다면 먹을 것이고, 주인이 안 계시다면 못 먹을 것이고, 못 먹는 거든 먹는 거든 주인에게 맡겨 놔라 이거야. 엎드러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젖혀 놓을 수 있는 힘도 있고, 굶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먹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건 누구냐? 그 천 년을 오면서 자기를 인도환생으로 끌고 온 자기 장본인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까 거북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남을 살생을 안 하고 이렇게 거쳐 와서 인간으로 환토를 해 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벌써 부처 될 90%의 가능성이 있고 100%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짐승으로선 사람 되기 위해서 천 년을 그렇게 지내 왔지만, 도를 닦아 왔지만, 수행을 했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됐을 적에는 천 년이 일 초도 될 수 있고 일 초가 천 년도 될 수 있고 천 년이 삼 일도 될 수 있고 구 일도 될 수 있고 일 초도 될 수 있고 그러하니, 모든 것은 그 끌고 나온, 끌고 다니는, 이름해서 참근본에 모든 거를 맡겨 놔라.

우리가 그전부터도 이런 인연이 없었더라면 이 한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원이 낮은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대로 모이게끔 돼 있고, 차원이 높은 사람은 차원이 높은 대로 모이게 마련입니다.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듯이, 이 세상을 가만히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 보십시오. 모두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합니다.

그런 거를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은 대자연의 선구자이기도 하면서 우린 부처일 수도 있으며 한생각 내려놓으면 법신이면서 보살이면서 또는 한 발짝 다시 떼 놓으면 '발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머리 위에는 만 부처가 같이 한자릴 하고 있고, 이 손은 법신의, 바로 보살의 그 손이기에 없는 손이다 이거야. 어디고 손 아니 닿는 데가 없는 보살의 손이다 이거야. 또 이 발은 아니 닿는 데 없이 법에, 법신에 의해서, 보살에 의해서 바로 신장이 뒤따라 주는 발신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작동을 한단 얘기예요.

보살은 보살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부처는 부처기 때문에 '자비다, 자비 아니다'라는 거를 통틀어서 능력만 보살에게 내 줄 수 있는 그 부동한 심봉과 같은, 원자력과 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살에게 잘못하거나 부처님에게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법이 내리는 거야.

> 여러분이 저녁 먹을 쌀이 없더라도
> 그 주인이 계시다면 먹을 것이고 안 계시다면 못 먹을 것이고,
> 못 먹는 거든 먹는 거든 주인에게 맡겨 놔라.
> 엎드러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 젖혀 놓을 수 있는 있는 힘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보살의 이 경지는 산신도 되지 독성도 되지, 즉 지금 말로 한다면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또는 그, 판사 우두머리가 뭐죠? 허허허, 응? 응, 대법원장!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쭉 내려오면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은 '마음을 먹고 잘못했느냐, 말로 그냥 잘못 말을 했느냐' 거기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은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하지만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짓는 거를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 마음에 의해서. 그러니 누가 앞에 있으면서 말을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라.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를, 가진 것 다, 모든 거를 다 맡겨 놔라 하는 거는 '죄짓지 말라' 이거거든. 부처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모든 걸 맡겨 놓게 되면 전자의 거북이로 살던, 소로 살던, 짐승으로 살던 그 습을 다 놓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때의 그 연쇄 반응으로 지배를 받던, 차원의 지배를 받던 낮은 동물이나 이러한 것은 다 놔 버리니까 타 버리고 마는 거죠. 원자력에 다 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원자력의 힘이 100%이고 전자력의 힘이 50%라면 50%는 100%에 먹혀 버리고 말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의 그 습이, 팔자 운명이라는 그런 거, 또는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다 그냥 체인지가 돼 버리고 말죠. 타 버리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다 놔야 할 것을 못 놓고 이렇게 애를 쓰니, 사람 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웠는가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니와, 우리가 수십억 년이라고 해도 되고, 년도 광년이라고 해도 돼. 그러면 수십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생길 때부터 모든 생명들이 생겨 가지고서 우리가 차츰차츰 자라 가지고 인간이 되기까지에는 얼마만큼 그게 걸렸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사람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사람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가난을 면하고, 운명 팔자를 면하고 또는 생사윤회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당부할 것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꿰뚫어 보고 또 알고, 이런 것을 원하지 마세요. 왜? 그걸 꿰뚫어 보면 "넌 팔자가 이렇다. 너는 운명이 이렇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다. 너는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고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있다." 요런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판사밖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놓는다면, 여기 이 눈으로다가 자꾸 오지 않고 마음으로 들게 하는 것은 요런 소소한 거를 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 이 팔자 운명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대로 '이건 팔자가 없다.' 하면 없는 겁니다.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하면 않은 거야. '넌 잘 살겠다.' 하면 잘 사는 거야. 그렇게 자유권을 가지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왜 거기에 끄달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서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6년 7월 26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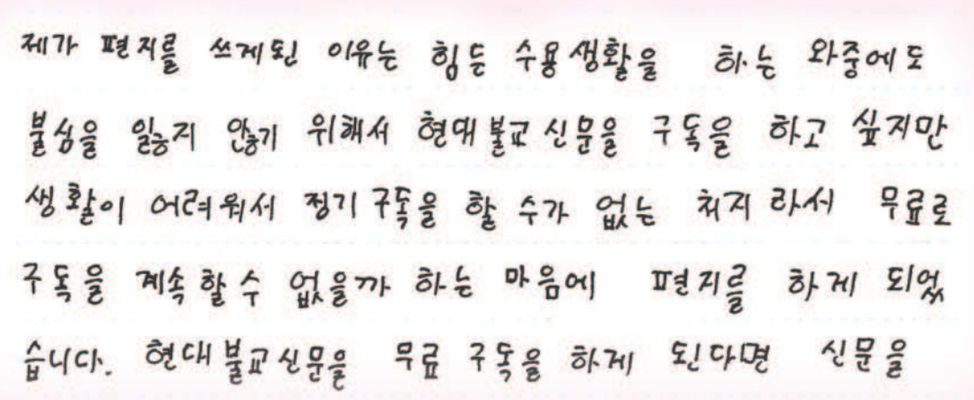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心 talk talk

⑳ 자기돌봄

자신 먼저 돌보는 것, 지혜로운 일

'노력' '성실' '성과' '목표'…. 이 시대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 유능함을 인정받는 것은 현대인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존재의 가치는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거나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게 된다.

인간의 절대 가치가 정말 무엇일까? 생명의 가치,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는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수많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희망을 찾지 못한다. 생산적 성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희(가명) 씨는 30대 유능한 연구원이었다.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지도교수에게 인정받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담실을 찾은 이유는 자신의 불안 때문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는데 불면증과 함께 가슴이 뛰고 답답해했다. 그녀는 언제나 초시계를 재듯 정확하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왔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씩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냈다. 상담 3회차를 맞았을 때 도희 씨의 이야기를 끊고 불쑥 물었다.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이야기 맥락이 끊긴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는 듯이 눈을 껌뻑거렸다.

"식사는 야채가 있는 것으로 드셨어요? 아님 고기? 아님 현미밥? 무엇으로 드셨어요?"

재차 질문에 그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먹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가 더 궁금해서요"라고 답했다.

도희 씨는 자주 듣는 질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바빴던 도희 씨의 부모님들은 그녀를 방치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 대화가 없었던 도희 씨의 어린 시절은 성적이라는 성과 외엔 나눌 대화가 없었다. 심심했고 외로웠고 노력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이후 체념한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고립됐다.

자기돌봄! 이 단어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다. 자기돌봄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오해받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아껴준다는 의미이다.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돌봄을 하지 않았다면 분명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긴장된 상태일 것이다.

사실 자기돌봄은 부모의 돌봄으로 체험을 통해 습득한다. 양육자의 섬세한 돌봄으로 아기들은 스스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는 그 말은 경험을 통해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아껴주는 마음이 '자기돌봄'

앗따닷다 장로 지혜 칭찬한 부처님

이런 경험이 결핍되면 불안정 애착으로 성장한다. 불안정 애착 관계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속에서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체념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멈추게 하고 자신들도 사랑을 받고 싶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마주한 아이들은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억압하고 양육자의 요구에 철저하게 맞추며 살아간다.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아이들은 양육자의 요구가 자신의 욕구라고 스스로를 속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닦달하며 채찍질한다. 힘들고 지쳐 있는 자신에게 잔인하게도 왜 더 잘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며 몰아세운다. 이들은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돌봄이라고 착각한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관대하고 수용하자는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를 나태하고 매우 이기적이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부처님 당시 앗따닷다 장로는 홀로 정진하다 다른 비구에게 비난을 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왓티에 계실 때 4개월 후에 빠리닙바나(열반)에 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수다원과를 얻지 못한 비구들은 충격을 받고 부처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앗따닷다 장로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노력해 아라한과를 성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홀로 열심히 정진하는 앗따닷다 장로에게 다른 비구들은 "왜 우리와 이야기도 하지 않고 피하냐" 따졌고 부처님께 가서 이 일을 보고했다. 부처님께서는 앗따닷다 장로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물었고 장로는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빠리닙바나에 드신다셨고, 살아 계실 때 아라한과를 성취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전력을 다해 정진하고 있으며 저는 남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결심이라 칭찬하며 "남을 이롭게 한다고 자신의 이로움을 게을리하지 말아라"는 게송을 남기셨다.

부처님은 앗따닷다에게 이기적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으셨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앗따닷다를 지혜롭다고 하셨다.

어릴 때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으로 자기돌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괜찮다!"

불안정 애착은 성인이 된 후 다른 관계를 통해 회복하고 안정애착을 경험할 수 있다. 기회는 언제든 있다.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라. 자신이 무엇을 진정 바라고 있는지 오늘 하루 천천히 쉬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길 바란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⑭ 균형을 향한 끊임없는 불균형

등 곧게 뻗고 걸어야 건강해진다

약 600만 년 전 최초로 두 발로 일어선 인류는 중력과 싸우면서 줄곧 걸어왔다. 그렇기에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걸으면서 중력에 대항하고 중력과 타협하고 중력의 도움을 받으며 걸어온 역사다. 중력과 걷기는 협력과 대결의 연속이다. 중력 때문에 우리는 땅과의 접촉을 잃지 않고 땅을 박차고 걸을 수 있지만, 몸을 움직이려면 중력 때문에 힘을 들여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올려야 하고 내려야 한다.

중력과 균형(무거운데 균형 잡으며 걸어야 한다)

사람의 이족보행은 네발 보행의 동물들과 달리 안정성이 떨어진다. 두 발로 걷기는 연속적인 균형의 상실과 회복의 반복이다. 보행은 신체가 전방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시작된다. 기울어진 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새로운 위치로 한 발을 이동시킴으로써 순간적으로 균형을 회복한다. 이렇게 걷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가려는 관성에 의해 몸의 무게중심이 더 앞으로 쏠린다. 다시 몸은 균형을 잡기 위해 다른 발을 앞으로 딛는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은 걷는다. 이때 무게중심은 두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수직적으로 가장 높고, 두 발이 벌려졌을 때 낮아진다. 마찬가지로 발의 움직임에 따라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고, 동시에 몸의 무게중심도 좌우로 흔들리며 걷는다. 이러한 걷기 과정에서 몸의 안정성은 무게중심이 가장 낮을 때, 또한 무게중심이 몸의 좌우 중심선과 일치할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나 걷기 위해서는 이 안정적인 균형점을 벗어나야 한다. 인체에 축적된 에너지를 써야 하는 시점이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주기적으로 상하 곡선을 그리며 사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걷는다. 이때 상하좌우의 폭이 클수록 에너지 손실은 크다. 또한 균형을 상실한다.

원추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원추의 무게중심이 좌우한계점(균형점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점)에 있기 때문이다. 인체의 중심도 걷거나 뛰거나 간에 언제나 좌우한계점에 있을 때 쓰러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근골격계에서는 좌우 위치와 같다.

그렇다면 몸의 무게중심이 좌우한계점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은 뇌일까? 아니다. 뇌는 걸으라고 명령을 내릴 뿐 매번 오른발 왼발을 외치며 발과 관절에게 좌우한계점을 유지하게 하지 않는다. 김세연의 KSNS에 의하면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신경구조의 명령에 따른 근육의 움직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무의식 속에 움직이는 신경구조의 명령이 몸의 균형과 안전을 유지한다. 무의식 신경 덕분에 상체에 비해 가벼운 하체의 면적도 좁은 두 발이 좌우로 흔들거려도 안정적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다. 무게중심이 언제나 양 발바닥 사이에 있어야 불안정한 구조물인 인간이 지속적 불안정 상태인 걷기를 할 수 있다.

걷는 자세가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네 발로 걷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두 발로 걷는다. 매 걸음마다 인간의 수직 무게중심과 좌우 균형은 오르내리고 흔들거림을 반복한다. 성인 남자의 평균 몸무게를 70~80kg이라고 한다면, 양발은 각각 35~40kg을 지탱해야 한다. 발바닥은 인체 표면적의 2%에 불과하지만 좌우 위아래로 흔들리는 몸무게 전체를 버터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이러한 부담은 전체 체중의 60% 이상을 감당하는 허리도 마찬가지다. 무릎은 그나마 두 개이지만 허리는 상체를 척추 하나로 지탱하고 있다. 허리 부분의 척추는 체중의 6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목뼈는 3kg 이상의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목 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몸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근골격계뿐만이 아니다. 근골격계에 매달려 있는 내장기관도 나빠진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옆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았을 때 등이 곧게 뻗어 있는 자세다. 걸을 때는 목과 머리 부분은 약간 하늘을 보는 시선을 유지한 목을 세워 시선을 약간 올리고, 턱은 당기며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허리를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자세로 걷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약해져 간다. 그리고 약한 부분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 과도하게 반대편의 근육과 뼈를 사용한다.

사람의 걷는 모습에 따라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 우선 걷는 속도가 느리면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좌우 양쪽의 균형이 맞지 않게 기우뚱거리며 걸을 때는 골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 왼쪽으로 치우쳐 걸으면 걱정거리가 많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걸을 때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다. 걸을 때 몸이 앞뒤로 흔들리면 뇌에 이상이 의심되며 이른 시일 내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고, 발을 질질 끌며 걸으면 뇌가 다리 근육에 걷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인연
인생 방향성 찾게 된 계기

2020년은 더 큰 불교의 세상을 만나게 된 해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인제대 불교학생회가 대불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불련과의 인연은 2022년 대불련 부산지부장 활동으로 이어졌다.

2022년 활동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점이라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 우선 완전히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지지 않았고 모일 공간조차 명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한몫했다.

감사하게도 화엄승가회에서 내가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후원을 해주셨지만, 부산시 전체의 학생들을 모으고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 불자 포교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자비를 만나게 되었다. 그 인연과 자비를 바탕으로 큰 깨달음과 인생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찾았던 것 같다.

한 예로, 2023년도 1월에 진행했던 '1080배 챌린지'가 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아 젊은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행을 해보고자 1080배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도움이 있었다.

부산 북구 진흥사에서는 공간 및 식사를 지원해줬고, 부산교수불자회에서는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대불련 부산지부 동문회에서는 간식 제공을 해주시는 등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다. 덕분에 총 24명의 지원자들은 무사히 1080배 챌린지를 마쳤다.

편안한 장소, 그리고 학생이라 흥미를 느낄 문화상품권의 제공으로 시작된 행사 참여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와 불심을 배운 우리 법우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에 관련한 경전 일화를 소개한다. 죽음을 앞둔 장자가 아들에게 "목욕재계를 하고, 동서남북과 위아래 여섯 방향을 향해 예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들은 유언대로 매일 절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보고 이 같이 말씀하셨다.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 위쪽은 사문, 아래쪽은 하인이라고 생각하라. 모든 방위에 절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라."

2024년 현재,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불교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한 내 삶의 방향성도 더 많은 사람이 불교를 경험해서 마음속의 촛불을 켜 따뜻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대불련 선배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사랑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 것이고 이를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⑦ 아토피 증후군에 대하여

아토피성 질병, 모두 共業의 산물

아토피 환자들의 부모 세대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주택개량, 토지개간, 혼분식 장려 등으로 삶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각종 조미료와 방부제, 세탁제,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부모들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태아 수준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된 개체들은 성장기를 거치며 각종 아토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아토피(atopy)'라는 용어는 부정의 의미인 'a'와 일정한 영역을 뜻하는 'topos'가 결합돼 'atopy'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용어는 특정한 위상 공간(topos) 또는 특정한 범위에 있지 않음을 뜻하게 된다. 이 개념을 의료적 차원으로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증상은 있으되 그 원인체가 그 장소 내지 공간에 있지 않은 기묘한 질환을 지칭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토피 개념에는 단절과 차단이라는 사회적 단층의 형성이 반영되고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병원체(pathogen)'가 없이도 질병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병원성 물질에 대한 부재로서, 질환에 대한 원인물질의 병리적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병원성 물질의 존재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현대의학의 개가는 현미경의 발명과 관련이 있다. 이 현미경에 의하여 이전 시대에 알 수 없던 여러 병원균들이 파악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생명체들이 파악돼 이를 학문화하여 미생물학으로 발달한다.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항원 항체 반응을 거론하는 면역학이 등장한다. 하지만 아토피는 이러한 과학적 성과물들과 무관하게 자리 잡고자 한다.

근대화되며 부모들 삶은 개선돼
과정서 화학물질 과도하게 노출
자녀 피해…사회구조 개선 필요

그림자 없는 나무라든가 메아리 없는 골짜기를 운운하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 이어진다. 어찌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바람도 없이 파도가 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아토피는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책사유의 입증과 밀접하다. 아토피가 주장하는 병리학적 알리바이는 체질의 문제로 귀결되곤 한다. 체질을 물려준 부모의 삶을 묻게 되는 것이다.

아토피 질환의 경우, 환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화학물질을 차단하고 배출하거나 해독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질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아토피적 증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아토피에 내재된 개념은 세대 간의 단절을 암시하며,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독특한 사회의 학적 증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아토피적 증후군은 한마디로 현대사회에 관계의 단절과 공간의 격리를 도입한 것이다.

알레르기가 보편화된 이후, 근래 20년간 새로이 급부상한 아토피의 독특한 병리적 개념이 인식체계에 상식으로 도입되면서 겪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현장 부재의 면책사유라는 아토피적 증후군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릇된 대응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생명현상의 연기적 흐름을 전제로 하는 질병 해석과 대안 제시이다. 무명의 문제는 개인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개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미얀마에 희망의 물 '콸콸' 솟길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한다.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물이 없다면 살 수 없다. 우리 몸조차 약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물은 소중하다.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물을 편히 구할 수 있는 나라와 달리 여전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오염된 식수로 삶이 위협받고 있다. 해마다 열악한 위생 시설과 더러운 물로 80만 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미얀마도 예외는 아니다. 미얀마에서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지표면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표수와 혼합된다. 그마저도 무더운 날씨로 지하수 생산량이 줄면서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을 항아리에 받아 저장한다. 아무런 정수 과정이 없는 탓에 이질·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마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미얀마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자 현대불교신문과 로터스월드가 힘을 모은다.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양 기관은 미얀마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마음껏 안정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 지원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건축의 종합적 계획을 관장하고, 현대불교신문은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정수시설은 1기에 6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와 교환 등 사후 관리도 이뤄진다.

미얀마에는 집집마다 나그네를 위한 물 항아리를 비치하는 전통이 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자비의 항아리 '예오(Water Pot)'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마른 이웃과 물을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불심 깊은 미얀마 사람들. 이젠 우리가 그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종단 조직, 붓다 교지 실현이 목표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사람들은 종교조직이 일반조직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 다름은 종교조직이 가진 탈세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세속의 종교조직도 행정 측면에서는 세속의 일반조직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조직의 행정은 인사관리와 재무관리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불교종단조직의 행정과 수행을 구분할 필요가 생긴다. 수행이 종교적 '목적'이라고 한다면,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을 어떻게 정비해야지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불교종단이 종교조직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은 불교종단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편에 그쳐야 한다. 불교종단 행정조직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교종단으로서의 목적과 행정조직으로서의 방편이 전도(顚倒)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불교종단 행정조직이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탈피하여 수행과 전법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야함을 시사한다. 불교조직의 종교적 정체성에 맞추어 수행과 전법이 목적이 되고 행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종단 행정조직은 붓다 교지(教旨)의 실현을 행정의 목적으로 함이 타당하며, 그 목적은 수행과 전법으로 집약되기 때문이다.

불교종단 행정조직 '행정'에 방점
가톨릭 조직은 종교적 목적 강해
수행과 전법 목적을 둔 개편 필요

이와 관련해, 가톨릭의 교회행정 중앙기관인 교황청의 조직기구를 분석해보자. 교황청은 국무원(Segreteria di Stato), 부(Dicasteri), 기구(Organismi)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국무원'은 국무부, 외무부, 외교인사부로 조직된다. '부'는 △복음화부 △신앙교리부 △애덕봉사부 △동방교회부 △경신성사부 △시성부 △주교부 △성직자부 △수도회부 △평신도가정생명부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 △종교간대화부 △문화교육부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부 △교회법부 △홍보부 등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기구'는 사법기구와 재무기구로 조직된다.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이 총무, 기획, 재무, 인사 등과 같이 행정적 목적이 주된 구성임에 비해 교황청의 행정조직은 종교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교황청 등 타종교의 행정조직을 한국불교 종단조직의 모범으로 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교조직의 구성 목적이 행정적 기능의 수행이 아닌 종교적 역할의 실현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을 제기하기 힘들다.

이는 불교종단의 행정조직이 불교적 종교성을 지향하고 실현하도록 구성되어야함을 시사한다. 즉, 인간이 고통을 해소하여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이룰 수 있도록 수행과 전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서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종단들이 수행과 전법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편인 행정이 목적으로 전도되어 온 경향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불교적 종교성을 실현할 부서들이 중심이 되고 행정 부서들은 이를 지원하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계종의 전면적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에 이런 기대를 가져본다.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이유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유마경〉 구절을 화두처럼 짊어지고 수미산 코라(산돌이)를 돈다. 맑고 청명한 하늘 아래 보석처럼 빛나는 설산 수미산이 자리한다. 우뚝 솟은 정상위에 온갖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 흩어진다. 우주의 중심이라는 수미산 꼭대기 중앙에 위치한 제석천 하늘에 펼쳐지는 인드라망이다. 촘촘한 그물망 마디마디 맺힌 겨자씨 크기의 이슬방울이 서로를 비추며 펼쳐내는 장엄한 실상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중무진연기이기에 수미산도 겨자씨 속에 담을 수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에 입을 다물기도 전에, 존재·시간·공간 모두 의식이 빚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양자역학의 혁명적 세계관까지 전해진다. 통념을 뒤엎는 일에 선봉이던 불교철학의 뒤를 현대과학이 바짝 따라붙고 있다. '원리전도몽상'을 현대과학이 입증해내고 있다.

세계는 오직 의식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의식은 대상을 연해서 작동된다. 따라서 세계는 대상과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알려진다. 하지만 대상과 의식이 분리되는 순간 실상은 멀어진다. 즉 보고 싶은 대로, 업력이 이끄는 대로만 한정시켜 본다는 이야기다.

실상의 불가사의를 눈치 챈 양자역학자 닐스 보어와 의식만이 진실이라 믿어온 아인슈타인의 대화를 재구성해 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양자역학 마스터'
시공간, 존재 모두 의식이 만든 산물
상상하면 이뤄진다는 희망을 찾아야

"저 수미산이 내가 볼 때만 존재하고, 뒤돌아서서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나?"(아인슈타인)

"어쩔 수 없지만 진실이네! 언어와 생각으로는 이해 불가하네!"(닐스 보어)

우리는 공간이나 크기를 실재라 여긴다. 겨자씨는 작고 수미산은 크다 여긴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믿는다. 원인이 먼저고 결과는 나중이라 여긴다. 일체 존재를 실체라 간주한다. 하지만 모두가 의식이 빚어낸 개념이다. 존재, 시간, 공간이란 의식의 본질적 한계가 양산해낸 허상이다. 우리가 체감하고,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본질적으로 존재=0, 시간=0, 공간=0이다. 수미산이 볼 때만 존재하고,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담길 수 있는 이유가, 무량겁이 지금 여기에 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의식이 관여할 때만 입자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가사의한 실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존재, 시간, 공간과 함께 세계도 없다는 허무주의? 아니다. 역으로 상상은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삶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일체가 연기적 작용성이 명확한 실효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양자역학 마스터다. 숨겨진 차원, 현상 너머의 실상 차원을 통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통달자다. 상상을 현실로 장엄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큰 스승이다.

두통, 복통, 설사, 어지러움 등 온갖 고산증에 시달리며 걷고 있는 이 순간 수미산 순례길은 참일까? 아니면 의식이 빚어낸 환(幻)일까? 성불의 증명이라는 백천만억 붓다의 광명으로 요동치며 빛나는 보석 같은 인드라망을 꿈꾼다.

社 說

9월 불교도 대법회, 한국불교 역량 보이자

오는 9월 23~28일 '2024년 불교도 대법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봉행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전방위로 역량 결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6일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요사찰 회의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직할교구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동참과 결집을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포교원은 '2024 불교도 대법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각 교구본사의 협조를 구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증명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조계종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초의 연합수계법회와 600여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보공양법회, 국제 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등으로 구성된다.

진우 스님은 이번 대법회를 통해 "K-명상 세계화 선포와 함께 새로운 포교방식의 물코를 틀겠다"는 포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의 말처럼 한국형 선명상의 보급은 불교 전법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현재 개신교의 경우 오는 9월 22~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복음주의 선교대회인 '로잔대회'를 열며, 가톨릭은 2027년 세계 규모의 청년대회를 준비 중이다. 각 대회의 취지가 있겠지만, 자신의 종교 교세를 대내외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9월에 봉행될 불교도 대법회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대법회의 성공을 위해 종단적 역량을 집중시킬 이유는 분명하다.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운동' 필요하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취임 이후 꾸준히 대내외적으로 광폭 행보를 보였다. 전국을 순회하며 종도들을 만나 소통했고, 어느 불교종단보다 빠르게 대사회적인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중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했다. 정관계 인사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며 종단 외연 확대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공약사항이었던 문화사업단 출범, 교육사업 확대 등도 원만하게 추진 중이며,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 선양사업들도 하나 둘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열린 상진 스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이 같은 성과들을 자평하고, 향후 방향을 짚는 자리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는 완전 빗나갔다. 상진 스님은 기자회견문 전부를 '범종단적 이승만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 전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상진 스님은 "'종교편향불교유린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승만 기념관 건립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파사현정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건립 반대운동을 결연히 펼쳐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건립 반대 기조도 '전면적 반대'로 확대됐다.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이승만의 유시로 이뤄진 정화운동으로 비구 중심 종단이 탄생했지만, 이로 인한 후유증은 오롯이 현재의 불교가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기독교 우위의 현재 종교 지형도를 만든 장본인이 이승만이기도 하다. 해원과 상생의 공간인 '광장'에 분열과 갈등을 촉발한 인물의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7월 2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